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결정사안】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사와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1948. 9.부터 1950. 5. 16. 사이 전라남도 담양 등 11개 지역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여 진실규명 대상자 45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29명 등 총 74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사와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1948. 9. 부터 1950. 5. 16. 사이 전라남도 담양 등 11개 지역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여 진실규명대상자 45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29명 등 총 74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2. 신청사건은 대부분 1948. 10. 19. 여순사건 발발 후 한국전쟁 전까지의 시기에 발생하였다. 이 시기 군경은 반군 진압작전과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반군과 이에 가담한 협력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고, 이때 민간인들이 반군에게 밥을 해주었다거나 14연대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3. 사건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고흥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곡성군에서 6건이 발생하여 11명이, 구례군에서 8건이 발생하여 21명이, 담양군에서 2건이 발생하여 13명이, 목포시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보성군에서 3건이 발생하여 3명이, 순천시에서 2건이 발생하여 8명이, 신안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영암군에서 2건이 발생하여 2명이, 장성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일가족 9명이, 장흥군에서 3건이 발생하여 3명이 희생되었다. 이는 신청사건 위주의 조사결과이고, 신청사건 중에서도 구례지역, 순천지역, 보성·고흥 지역에서 이미 진실규명된 사건들을 제외한 조사결과라는 한계가 있지만, 본 조사결과를 통해 전라남도 동부지역 외에 신안, 영암, 장성 등 전라남도 각지에 여순사건의 피해가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희생이유는 몇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 반군이나 빨치산 협조 혐의로 희생당한 경우로 당시 반군이나 빨치산 활동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반군에게 협

제 3 권

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반군이나 좌익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희생당한 경우로 군 경은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셋째, 군경이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 발포하여 희생된 경우다. 넷째, 반군 색출 과정이나 경찰서 등 습격사건 후의 보복성 조사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희생당하거나, 무고와 모략으로 인해 희생당한 경우다. 다섯째, 대살(代殺)로, 제14연대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당한 경우이다. 여섯째, 반군 등에 협조한 뒤 지서 등에 자진 신고하러 갔다가 사살당한 경우다.

5. 본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3연대, 제12연대, 제15연대와 전남 경찰국 산하 각 지역 경찰로 확인되었다. 제3연대는 구례군 산동면에 주둔하면서 토벌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반군 협조 혐의로 원달리 달전마을, 원촌국민학교 등지에서 살해하였다. 제12연대는 순천 황전면, 구례 각 면에서 토벌작전 도중 주민들을 반군 협조 혐의로 섬진강 양전지구, 간전면 간문천변 등지에서 살해하였다. 제15연대는 순천시 송광면 등지에서 빨치산 협조 혐의로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전남경찰국 산하 벌교경찰서, 곡성경찰서, 담양경찰서, 목포경찰서, 보성경찰서, 순천경찰서, 영암경찰서, 장성경찰서, 장흥경찰서 등과 각 지역 지서 경찰, 경찰토벌대 역시 반군 진압작전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본서나 읍면별 지서로 연행하여 고문, 구타한 뒤 해당 관내에서 살해하였다.

[전 문]

【사 건】 직다-438 등 30건,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신청인】 고재언 등 29명

【결정일】 2010. 5. 18.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 접수 및 처리 과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기간(2005. 12. 1.~2006. 11. 30.) 동안 군경이 국군 제14연대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총 832건)을 접수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상기 접수된 사건을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제14차 회의(2006. 7. 25. 구례봉성산여순사건 9건), 제17차 회의(2006. 9. 29., 구례봉성산여순사건 3건), 제20차 회의(2006. 10. 31. 288건), 제26차 회의(2007. 1. 30. 414건), 제28차 회의(2007. 2. 13. 63건), 제30차 회의(2007. 2. 28. 7건)에서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본 사건의 명칭을 ‘여순사건’으로 결정(조사1팀-1373, 2006. 11. 10.)하였다. 제39차 전원위원회(2007. 3. 6.)는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하여, 직권조사하기로 의결(48건 병합·조사개시 포함)하였다.¹⁾

그 뒤 전라남도 구례지역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2008. 7. 17.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2009. 1. 5. 보성·고흥지역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2009. 11. 10. 진실규명 결정되었다.²⁾

본 결정서의 조사대상 사건은 위의 결정서에서 누락된 고흥지역 여순사건 1건, 구례지역 여순사건 8건, 보성지역 여순사건 3건, 순천지역 여순사건 2건 등 14건과, 곡성·담양·목포·신안·영암·장성·장흥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16건 등 총 30건이다.

조사대상 사건 30건을 조사하여 사건발생지역, 진실규명대상자의 거주 지역과 사건 유형 등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건명을 정하였다. 예를 들면, 집단희생사건은 ‘○○군 ○○면 ○○(희생장소) 희생사건’, 개인이나 가족이 희생당한 사건은 희생장소와 진실규명대상자의 이름을 넣어 ‘○○군 ○○면 ○○리 ○○○(또는 ○○○가족) 희생사건’으로 사건명을 정하였다.

〈표 1〉은 지역별로 구분한 다음 사건번호 순으로 정리한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1) 제39차 전원위원회, 『여순사건의 직권조사 전환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안』,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 진실화해위원회, 『구례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8), 『순천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9), 『보성·고흥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9)

제 3 권

및 조사결과 사건명이다.

〈표 1〉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명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출생연도	신청인과의 관계	거주지			
고흥군											
1	직다-6471	2006.10.27	정하천 (丁河千)	정병룡 (丁炳龍)	남	1947	친척	대서면 남정리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정병룡 희생사건		
곡성군											
2	직다-505	2006.1.10	마인석 (馬仁錫)	마준화 (馬俊華)	남	1901	부친	석곡면 방송리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마준화 등 3명 희생사건		
				마임석 (馬林錫)	남	1907	재종형 (6촌)	석곡면 방송리			
				마성숙 (馬成淑)	남	1923	재당질 (7촌)	석곡면 방송리			
3	직다-2808	2006.3.30	김용철 (金容喆)	김만수 (金萬洙)	남	1914	부친	옥곡면 주산리	곡성군 옥곡면 무창리 김만수 희생사건		
4	직다-5416	2006.10.2	고영옥 (高永玉)	고규석 (高奎錫)	남	1924	부친	목사동면 수곡리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고규석 희생사건		
5	직다-6758	2006.11.13	김원순 (金元順)	박판순 (朴判順)	남	1893	시부	옥곡면 울사리	곡성군 옥곡면 울사리 박판순 희생사건		
6	직다-8020	2006.11.28	신현보 (申鉉普)	신삼균 (申三均)	남	1928	숙부	죽곡면 원달리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신삼균 등 4명 희생사건		
7	직다-8844	2006.11.30	신현호 (申鉉浩)	신봉옥 (申奉玉)	남	1902	조부	죽곡면 남양리	곡성군 죽곡면 남양리 신봉옥 희생사건		
구례군											
8	직다-473	2006.1.5	표안설 (表安堯)	표귀종 (表貴鍾)	남	1916	부친	토지면 파도리	구례군 구례읍 양정지구 파도리 주민 희생사건	동일 사건	
9	직다-606	2006.1.12	표경자 (表京子)	표귀종 (表貴鍾)	남	1916	부친	토지면 파도리			
10	직다-911	2006.1.23	김순심 (金順心)	김길동 (金吉東)	남	1927	오빠	간전면 금산리	구례군 간전면 간문천변 희생사건		
				김길수 (金吉洙)	남	1939	오빠	간전면 금산리			
11	직다-2408	2006.3.16	도광석 (都光錫)	도재덕 (都在德)	남	1908	부친	구례읍 봉서리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도재덕 가족 3명 희생사건		
				도광열 (都光烈)	남	1939	동생				
				도광옥 (都光玉)	남	1948	동생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 고
				성명	성 별	출생 연도	신청인과의 관계	거주지		
12	직다-2433	2006.3.17	박기성 (朴基成)	박판옥 (朴判玉)	남	1920	부친	산동면 좌사리	구례군 산동면 원촌국 민학교 뒷산 박판옥 희 생사건	
13	직다-2723	2006.3.28	임창규 (林昌圭)	임태규 (林泰圭)	남	1916	형	마산면 황전리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임태규 희생사건	
14	직다-8779	2006.11.30	윤우근 (尹宇根)	임아지 (林阿只)	여	1912	모친	간전면 중대리	구례군 간전면 중대리 임아지 희생사건	
15	직다-10133	2006.11.30	임정남 (林貞南)	임창순 (林昌淳)	남	1908	부친	산동면 좌사리	구례군 간전면 동방천 임창순 희생사건	
담양군										
16	직다-438	2006.1.4	고재언 (高在彦)	고광율 (高光律)	남	1918	부친	고서면 교산리	담양군 대덕면 중례골 고광율 희생사건	
17	직다-8524	2006.11.30	김영술 (金永述)	김점술 (金点述)	남	1935	형	대전면 서옥리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용구마을 12명 희생사건	
				김종철 (金宗喆)	남	1921	숙부			
				박균상 (朴均祥)	남	1933	주민			
				강용구 (姜龍求)	남	1931	주민			
목포시										
18	직다-4363	2006.7.18	백홍영 (白烘英)	백경조 (白敬祚)	남	1916	부친	순천읍 풍덕리	목포대학교 백경조 희생사건	
보성군										
19	직다-7641	2006.11.24	조영 (趙英)	조동석 (趙東錫)	남	1912	부친	낙안면 상송리	별교읍 소화다리 조동석 희생사건	
20	직다-8277(1)	2006.11.29	이영래 (李煥來)	이병규 (李秉圭)	남	1923	숙부	겸백면 수남리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이병규 희생사건	
21	직다-8364	2006.11.30	유일상 (柳一相)	유제경 (柳濟景)	남	1923	부친	득량면 정흥리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유제경 희생사건	
순천시										
22	직다-9106	2006.11.30	윤상근 (尹相根)	윤주한 (尹柱漢)	남	1932	숙부	해룡면 용전리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윤주한 희생사건	
23	직다-10584	2006.11.30	채아영 (蔡娥英)	이영근 (李榮根)	남	1904	시부	보성군 둔덕면 덕치리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 이영근 등 7명 희생사건	
신안군										
24	직다-7788	2006.11.24	박옥석 (朴玉石)	박정은 (朴正恩)	남	1898	숙부	하의면 상태서리	신안군 하의면 상태서리 박정은 희생사건	

제 3 권

연 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 고	
				성명	성 별	출생 연도	신청인과 의 관계	거주지			
영암군											
25	직다-8473	2006.11.30	김정두 (金井斗)	김병남 (金炳南)	남	1920	형	금정면 아천리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김병남 희생사건		
26	직다-8917	2006.11.30	최윤호 (崔潤昊)	최윤성 (崔潤成)	남	1916	형	금정면 아천리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최윤성 희생사건		
장성군											
27	직다-992	2006.2.3	강점례 (姜占禮)	강대석 (姜大錫)	남	1900	부친	황룡면 관동리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강대석 가족 9명 희생 사건		
				김기묘 (金基妙)	여	1908	모친				
				강가원 (姜可遠)	남	1927	오빠				
				강점순 (姜占順)	여	1938	동생				
				강시원 (姜施遠)	남	1941	동생				
				강인원 (姜仁遠)	남	1945	동생				
				박○○ (강가원 의 처)	여	미상	올케				
				강점희	여	4세	동생				
				강○○ (강가원 의 아들)	남	2세	조카				
장흥군											
28	직다-565	2006.1.6	손용갑 (孫用甲)	손금태 (孫金台)	남	1898	부친	관산읍 농안리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손금태·김소례 부부 희생사건	병 합 사 건	
29	직다-595	2006.1.6	손용갑 (孫用甲)	김소례 (金小禮)	여	1902	모친	관산읍 농안리			
30	직다-9338	2006.11.30	김용백	김난금 (金暖金)	남	1901	부친	장흥읍 관덕리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김난금 희생사건		

나. 신청내용

신청인 고재언 등 29명³⁾은 1948. 9.부터 1950. 5. 16.까지 전라남도 고흥 등 11개 지역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한 희생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다-438 등 30건의 사건에 대

3) 조사 대상 사건은 39건이지만, 손용갑이 직다-565, 직다-595 2건을 신청하여 신청인 수는 38명이다.

한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제출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인 진술조사를 진행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한 진실규명 신청내용을 지역별로 구분한 뒤 사건 번호순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연 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고흥군					
1	직다-6471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정병룡 희생사건	정하천 (남, 25)	시신목격	1949. 2월 신청인의 친척 정병룡은 당시 3세로 대서면 남정리 자택 마당에서 빨치산을 추격하는 별교경찰서 경찰이 오발한 총탄에 희생당하였음.
곡성군					
2	직다-505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마준화 등 3명 희생사건	마인석 (남, 1)	전문	1949. 5. 22. 신청인의 부친 마준화, 재종형 마임석, 재당질 마성숙 등 3명은 산에서 빨치산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곡성경찰서 경찰토벌대에 의해 끌려가 방송리 소재 밭에서 사살당하였음.
3	직다-2808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김만수 희생사건	김용철 (남, 9)	전문	1950. 5. 16.(음력 3. 30.) 옥과지서에서 조사를 받던 신청인의 부친 김만수 등 14명은 경찰토벌대에 의해 옥과면 무창리 뼈룩재라는 곳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김만수 등 2명이 사살당하였음.
4	직다-5416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고규석 희생사건	고영옥 (남, 1)	전문	1948. 11. 21.(음력 10. 21.) 신청인의 부친 고규석은 협박을 받고 반란군에게 길을 안내해준 뒤 그 사실을 목사동지서에 신고하려 갔다가 다음날 아침 지서 근처의 평리 다릿거리 뒷밭에서 가슴에 총상이 있는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가해자는 목사동지서 경찰로 추정됨.
5	직다-6758	곡성군 옥과면 율사리 박판순 희생사건	김원순 (여, 12)	전문	1949. 7. 26.(음력 7. 1.) 신청인의 시부 박판순은 자신이 평소에 관리해 오던 금단보를 점검하고 집으로 돌아오다 옥과천을 건널 때 잠복해 있던 경찰토벌대에게 빨치산으로 오인 받아 사살당하였음.
6	직다-8020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신삼균 등 4명 희생사건	신현보 (남, 1967년생)	전문	1949. 10. 10. 군산 12연대 군인들이 원달리에 들어와 신청인의 숙부 신삼균과 마을사람 몇 명을 원달2구 구 마을회관 앞 개울가로 끌고 가서 학살하였음.
7	직다-8844	곡성군 죽곡면 남양리 신봉옥 희생사건	신현호 (남, 1958년생)	전문	1949. 음력 7월 말, 신청인의 조부 신봉옥은 빨치산의 요구로 마을주민들과 함께 밥을 해준 뒤 죽곡지서에 신고하였고, 신고 후 죽곡지서에서 심한 고문을 당한 뒤 귀가하여 1950. 3. 9.(음력 1. 21.)에 자택에서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

제 3 권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구례군					
8	직다-473	구례군 구례읍 양정지구 파도리 주민 희생사건	표안설 (남, 7)	전문	1948. 11월, 군인들이 파도리 도산마을에 들어와서 마을주민들을 소집하여 반군 협조자를 탐문할 때 신청인의 부친 표귀종이 조사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항의하다가 군인들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되었음. 그 뒤 표귀종이 구례읍 양정리에서 사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음.
9	직다-606		표경자 (여, 1)	전문	
10	직다-911	구례군 간전면 간문천변 희생사건	김순심 (여, 10)	전문	1948. 11. 20. 신청인의 오빠 김길동, 김길수는 구례군 간전면 금산리 용지동 마을에 거주하다 여순사건 당시 구례군 간전면 간전국민학교로 끌려가서 군인들에게 희생당하였음.
11	직다-2408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도재덕 가족 3명 희생 사건	도광석 (남, 12)	목격	1948. 11. 19.(음력 10. 19.) 구례읍 봉서리 동산마을에서 제14연대 반군들과 제12연대 군인들 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고, 집에 있던 신청인의 부친 도재덕, 동생 도광열, 도광옥이 교전 중에 날아온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음.
12	직다-2433	구례군 산동면 원촌국 민학교 뒷산 박판옥 희 생사건	박기성 (남, 8)	전문	1949. 12. 16.(음력 10. 27.) 신청인의 부친 박판옥은 경찰이 불러 산동지서에 갔다가 다음날인 12. 17.(음력 10. 28.)에 원촌국민학교 뒷산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사살당하였음.
13	직다-2723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임태규 희생사건	임창규 (남, 11)	전문	1949년 봄 무렵 신청인의 형 임태규가 반란군 협조자라는 모략을 받아 구례읍 소재 구례농고 옆 거제리 개울가에서 제12연대 군인들에 의해 사살당하였음.
14	직다-8779	구례군 간전면 중대리 임아지 희생사건	윤우근 (남, 7)	시신목격	1949. 7. 4.(음력 6. 9.) 오후 9시경, 신청인의 모친 임아지는 마을 위에 있는 논에 물을 대러 갔다가 반란군으로 오인받아 잠복중인 15연대 1대대 3중대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았고, 집으로 운반되어 온 즉시 사망하였음.
15	직다-10133	구례군 간전면 동방천 임창순 희생사건	임정남 (여, 7)	전문	1949년경 신청인의 부친 임창순이 집 앞에서 군인에게 연행되어 간 뒤에 행방불명되었고, 2년 뒤 간전면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오빠가 간전면에서 금니로 식별하여 시신을 수습해왔음.
담양군					
16	직다-438	담양군 대덕면 증례골 고광울 희생사건	고재언 (남, 5)	전문	1949. 10. 6.(음력 8. 15.) 신청인의 부친 고광울은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대덕면 문학리 옥천마을 앞산에서 희생당하였음.
17	직다-8524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용구마을 12명 희생사건	김영술 (남, 8)	전문	1949. 10. 24.(음력 9. 3.) 신청인의 형 김접술 등 서육리 주민 12명은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월산면 도동고개에서 여순사건 진압군에게 희생당했음.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목포시					
18	직다-4363	목포대학교 백경조 희생사건	백홍영 (남, 8)	전문	1948. 12. 5.(음력 11. 5.) 순천철도국에서 근무하던 신청인의 부친 백경조는 목포경찰서 사찰계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목포대학교 운동장에서 신원미상의 5명과 함께 사살당했고, 신청인과 신청인의 숙부가 시신을 수습하였음.
보성군					
19	직다-7641	벌교읍 소화다리 조동석 희생사건	조영 (남, 4)	전문	1948. 10. 29.(음력 9. 27.) 신청인의 부친 조동석은 벌교읍 소화다리 밑에서 군인에게 사살당했음.
20	직다-8277(1)	보성군 검백면 수남리 이병규 희생사건	이영래 (남, 5)	전문	1948. 9월경 신청인의 숙부 이병규는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검백지서 경찰에게 끌려가 희생당했음.
21	직다-8364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유제경 희생사건	유일상 (남, 1)	전문	신청인의 양부인 유제경은 부엌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정흥리 자택 앞에서 희생당했음. 희생시기, 희생이유, 가해주체 등에 대해서는 모름.
순천시					
22	직다-9106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윤주한 희생사건	윤상근 (남, 3)	전문	1948년 여순사건 발발 당시 신청인의 숙부 윤주한은 순천 매산중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반란군 심부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음. 윤주한은 1년 정도 수감 생활 후 고문과 구타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 1년 후 사망하였음.
23	직다-10584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 이영근 등 7명 희생사건	채아영 (여, 7)	전문	1951. 9. 30.(음 8. 30) 오전 9시 군인이 마을로 들어와 반군 협조자 색출을 위해 유도심문을 한 뒤 신청인의 시아버지 이영근 등 8명을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 추동부락 인근 모후산 자락으로 끌고가 사살하였음.
신안군					
24	직다-7788	신안군 하의면 상태서리 박정은 희생사건	박옥석 (남, 1951년생)	전문	1949. 1월경 신청인의 숙부 박정음이 제14연대 군인으로 군경에게 사살당한 사촌동생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다가 하의면 상태서리 마을 금산 목넘기 골에서 경찰에게 사살당했음.
영암군					
25	직다-8473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김병남 희생사건	김정두 (남, 19)	시신수습	1949. 9. 10. 신청인의 형 김병남은 금정면 용흥리에서 약방을 운영하던 중 빨치산에게 약을 팔았다는 이유로 마을주민 10여 명과 함께 금정지서로 끌려간 뒤 전남경찰국으로 이송되었음. 그 뒤 광주 광산구 대촌면 양가리 하천변에서 김병남, 김재윤, 성명미상자 1명 등 3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음.

제 3 권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26	직다-8917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최윤성 희생사건	최윤호 (남, 18)	전문	1949. 4. 8. 신청인의 형 최윤성은 좌익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강진에 주둔하던 진압군에게 희생당했음.
장성군					
27	직다-992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강대석 가족 9명 희생 사건	강점례 (여, 15)	전문	1949. 12. 20.(음력 11. 1.) 신청인의 부친 강대석 등 가족 9명은 반군에게 식사와 정보 등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황룡면 관동리 독가촌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당했음. 당시 강대석 등 7명은 즉사하였고, 강점희(강대석의 딸, 당시4세)와 강○○(강대석의 손자, 이름미상, 당시 2세)는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1년 내 사망하였음
장흥군					
28	직다-565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손금태·김소례 부부 희생사건	손용갑 (남, 8)	사건목격	1950. 1. 5. 신청인의 부모 손금태와 김소례, 백모, 숙모는 장흥경찰서 관산지서 경찰에 의해 관산읍 농안리 우물가로 끌려갔고, 손금태를 제외한 3명은 그 자리에서 사살당했음. 손금태는 개머리판으로 구타당해 부상을 입고 강진군 누이 집으로 피신하였고, 3개월 뒤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
29	직다-595				
30	직다-9338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김난금 희생사건	김용백 (남, 8)	연행, 사신목격	1949. 10. 14.(음력 8. 22.), 신청인의 부친 김난금은 음식을 제공하는 등 반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장흥 경찰 5-6명에 의해 장흥읍 금산리 대처부락 마을 옆 논으로 끌려가 사살당했음.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1항제3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진실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본법 제22조 제3항은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순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동 사건을 직권조사 사건으로 전환했다.⁴⁾ 이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가 결정되었고, 사건 조사를 통해 사건발생시기와 장소, 희생규모,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 여부, 가해주체 및 가해의 불법성 여부 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과거와의 화해와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3. 규명과제

본 사건의 진실규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의 발생시기·장소 및 희생규모를 규명한다.

둘째,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 여부를 규명한다.

셋째, 가해혐의자로 언급된 군경, 소속, 가해 당시의 정황 및 군경토벌대의 작전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본 사건이 불법적인 절차로 인한 민간인 희생사건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4. 조사방법

가. 문헌자료 조사

문헌자료는 사건 관련 논문 등 선행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수집 기록물과 신문 자료 및 국가기록원 소장 재판기록 등을 확인했으며,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상황을 이해 하기 위하여 각 시·군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문헌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순사건 전후 전라남도지역의 정치·사회 상황, 군경의 진압작전과 전반적인 민간인 희생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제1집(여수지역 편)』,⁵⁾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제3집(순천 외곽지역 편)』,⁶⁾ 『여순사건 순천지역 피해실태조사 보고서』,⁷⁾ 『여순사건 자료집(여순사건 연구총서 제2집)』,⁸⁾ 『여순사건 논문집』,⁹⁾ 『주

4) 진실화해위원회 제39차 전원위원회 의결(2007. 3. 6.)

5)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제1집(여수지역 편)』, 1998. 본 자료는 좌우익 관련 생존자와 일반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여순사건 피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이다.

6)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제1집(순천 외곽지역 편)』, 2000. 본 자료는 좌우익 관련 생존자와 일반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순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여순사건 피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이다.

7) 여순사건진상조사위원회, 『여순사건 순천지역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여순사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순천

한미군정보일지, G-2 Periodic Report(1948. 3. 18~1949. 6. 17)』, 『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 G-2 Weekly Summary(1948. 1. 31~1948. 11. 26)』, 동아일보, 호남신문, 동광신문, 자유신문, 여순사건을 다룬 각종 논문 등을 검토하였다.

위 자료는 여순사건 이후 전반적인 지역의 피해상황, 좌익세력에 의한 소요사태, 이에 대한 군경 토벌작전과정을 다루고 있어 당시의 정치, 사회상황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의용경찰 참전사실 확인신청서』¹⁰⁾에서 신청인, 참고인들이 가해자로 언급한 군경의 소속을 확인하였다.

둘째, 진실규명대상자의 행적과 활동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비밀기록으로 분류하여 소장하고 있는 『사실조사서(고흥경찰서, 1980년)』,¹¹⁾ 『사실조사서(순천경찰서, 1980년)』¹²⁾ 와 『전향실태조사(전남)』¹³⁾ 등과 「판결문」,¹⁴⁾ 「수용자 신분장부」,¹⁵⁾ 「수형인 명부」,¹⁶⁾ 「집행명부」를 검토하였다.

셋째, 본 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라남도 구례지역, 순천지역, 보성·고흥지역 여순사건 결정서와¹⁷⁾ 본 위원회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2007년에 작성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

시민 연대, 2006. 10. 19. 이 보고서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리된 것으로 여순사건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피해 실태를 증언에 의존하여 정리하였다.

8)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자료집(여순사건 연구총서 제2집)』, 1999.

9)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논문집』, 2006.

10) 국방부, 『의용경찰 참전 사실 확인 신청서(전라남도)』본 자료에는 6.25 참전 의용경찰들의 인적사항, 소속, 계급, 재직기간, 참전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에서 언급된 가해자를 검색했으며, 참전개요를 통하여 당시 군경토벌작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11) 본 자료는 한국전쟁 전후 좌익관련 개인별 동향기록으로 1948년 초부터 1954년경까지 관내에서 활동했던 좌익 활동 혐의자를 ‘사살자’와 ‘생존자’로 분류하여 이들의 인적사항, 부역사실여부, 신원기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경찰청, 2007년 11월, 561쪽

12) 본 자료는 1948년부터 1954년경 사이 전남 순천, 송주관내에서 활동한 좌익혐의자들에 대한 기록이다. 당시 희생당한 남로당원, 민청동맹원과 여순사건 관련자들의 명단과 이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본 자료에 진실규명대상자 백경조(직다-4363) 등의 희생경위와 관련된 기록이 등재되어 있다.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562~563쪽

13) 본 자료는 1964년 법무부 검찰국 검찰 제 1과에서 생산한 문서이다. 당시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판결을 받은 후 전향한 인물들의 출소 후 동향을 기재한 문서이다.

14) 국가기록원에서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및 희생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은 찾지 못했다.

15) 「수용자 신분장부」는 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과 미결수가 형무소에 수용될 때 작성되고, 명적부, 형집행지휘서, 판결문, 구속(구류)기간연장·갱신 및 조회사항, 범죄경력조회, 자술서, 수용자의 신체특성·지문 등으로 구성된다.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진실규명대상자 윤주한(직다-9106)의 수용자 신분장부는 입수하지 못했다.

16) 「수형인명부」에는 수형인 한자성명, 연령, 직업, 주소, 죄명, 형량, 판결년월일, 형확정일, 판결법원명이 기록되어 있다. 광주·전주지방검찰청 및 예하지청에서 작성한 1948년부터 1951년까지 수형인명부를 확인할 결과 윤주한(직다-9106) 관련 기록은 찾지 못했다.

17) 진실화해위원회, 『구례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8), 『순천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9),

단희생 관련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¹⁸⁾를 검토하여 사건 당시 지역 상황을 이해하고 피해 사실 여부 및 가해주체를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

넷째, 『구례군지(상, 중, 하)』¹⁹⁾, 『순천시사(상, 하)』²⁰⁾ 등 각 시·군의 군지와 시지는 사건의 실재 여부와 여순사건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각 지역 상황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섯째, 희생자들의 제적등본을 각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입수하여 신원을 확인하였다. 이외 『6·25사변 피살자 명부』,²¹⁾ 『6·25 사변 피납치자 명부』,²²⁾ 『월북자 명단』²³⁾ 등에 진실규명대상자가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나. 참고인 조사

참고인 63명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일반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사건 발발 후부터 현재까지 사건발생지나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는 1920-40년대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희생자의 연행·감금 과정, 희생 장면, 시신 수습·처리 과정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조사결과에 반영하였다.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참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희생 과정이나 시신수습·처리 과정을 경험·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해 듣거나, 제삿날이나 생일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개인사와 관련된 기억을 갖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을 조사결과에 반영하였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 참고인 진술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사건현장 또는 연행장면을 목격하거나 시신을 수습한 신청인의 진술은 전문 참

『보성·고흥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9)

18) 진실화해위원회·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7. 본 자료에 김길동·김길수 형제(적다-911) 등의 희생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9) 구례군사편찬위원회, 『구례군지(상, 중, 하)』, 2005.

20)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순천시사(상, 하)』, 1997.

21) 공보처통계국, 『6·25사변 피살자 명부』, 1952년. 한국전쟁 중 인민군과 좌익에게 학살된 민간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희생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희생연월일, 희생 장소, 본적, 주소 등 8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22) 공보처통계국,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1952·1954년. 휴전회담 시 북한 측에 제출할 문서로 작성되었으며, 희생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직위, 납치 연월일, 납치장소, 주소 등 8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23) 공보처통계국, 『월북자 명단』, 1951년. 국가기록원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던 6·25피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자료로 10,290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희생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월북일, 경력, 당별, 주소, 본적이 기재되어 있다.

제 3 권

고인의 진술보다 우선시하였고, 특히 문헌자료가 없는 경우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을 확인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다.

둘째, 가해주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 군 또는 경찰서에 복무했던 참고인을 선별하여 당시 해당 지역 작전 상황과 민간인 희생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또 기존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표한 『구례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8), 『순천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9), 『보성·고흥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9)에 기재된 가해자 측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사건 조사결과에 반영한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표 지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고흥군							
1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정병룡 희생사건 (직다-6471, 정병룡)	정○○ (남, 15)	대서면 남정리	전문	친척	진술조서 (20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 1949. 2월경• 희생장소 : 대서면 남정리(월등마을) 자택• 가해주체 : 벌교 경찰서 소속 대서면지서 의용경찰의 오발로 집 마당에 있던 정병룡이 사살 당했음• 마을상황 : 월등마을(丁씨 집 성촌)은 여순사건 당시 고흥 팔영산 방향으로부터 진압군에게 쫓겨온 반군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음. 경찰들이 주민들을 불러 내어 조사, 구타했으며, 많은 피해가 발생함.• 시신수습 : 가족이 수습
곡성군							
2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마준화 등 3명 희생사건 (직다-505, 마준화, 마성숙, 마임석)	마○○ (남, 25)	석곡면 방송리	연행목격	주민	진술조서 (2010.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 먼 일가이자 평범한 농부였던 마준화, 마성숙, 양숙이 아버지(조사결과 마임석으로 확인) 등 3명은 반란군 연락책이라는 오해를 받았음.• 희생시기 : 1949년 음력 5월경• 희생장소 : 방송리 소재 짐바철에 있는 밭(현재는 없어진 운흥사라는 절 부근)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표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2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마준화 등 3명 희생사건 (직다-505, 마준화, 마성숙, 마임석)	마○○ (남, 25)	석곡면 방송리	연행목격	주민	진술조서 (2010.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주체 : 푸른색 옷을 입고 철모를 쓰고 있어서 군인이라 생각하였음. • 희생이유 : 반란군의 연락책이라는 오해를 받고 군인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반란군을 수색했으나 찾지 못하여 사살됨. • 시신수습 : 시체가 심하게 상하여 뼈만 추려 장사지냈다고 들었음. • 희생규모 : 마준화, 마성숙, 그리고 양숙이 아버지(마임석) 등 3명. 이들이 군인에게 끌려 짐바철로 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음.
3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김만수 희생사건 (직다-2808, 김만수)	오○○ (남, 16)	옥과면 무창리	출상목격	주민	진술조서 (2010.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같은 마을 좌익 박○○이 김만수(이명 김천수)의 집 앞에 여러 번 뼈라를 붙였기 때문에 평범한 농부였던 김만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없어서 풀려나오곤 했음. • 희생시기 : 1950. 5월경(한국 전쟁 발발 한달 전 경) • 희생장소 : 옥과면 무창리 뼈라재 앞 강변 • 가해주체 : 옥과 지서에 있던 경찰특공대 • 사건내용 : 김만수가 좌익 박○○이 붙인 뼈라 때문에 옥과 지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경찰도발대가 옥과지서에 도착하여 “전부 빨갱이 아니여” 하면서 조사를 받던 15명을 지서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창리 강변으로 끌고갔음. 김만수 등 2명이 사살당한 순간 옥과지서장인 정갑준이 나타나 사살을 저지하여 13명은 살았음. • 시신수습 :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고 참고인은 출상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 • 희생규모 : 김만수 외 1명(소룡리 주민, 신원 미상)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3		오○○ (남, 16)	옥과면 무창리	출상목격	주민	진술조서 (2010.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격사항 : 참고인은 당시 옥과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옥과지서에 있던 경찰토벌대를 목격하였음.
4		신○○ (남, 24)	석곡면 염곡리	전문	곡성경찰서의경 경찰토벌대	진술조서 (2010.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 경력 - 참고인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1950. 7. 10에 곡성경찰서 의경으로 채용되었고 1956년까지 경찰토벌대로 근무하였음. • 진술내용 - 참고인은 곡성경찰서 의경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경찰토벌대원들이 옥과지서에 수감되어 있던 마을 청년 15명을 빨갱이라는 이유로 사살하려던 것을 옥과지서장(성명미상)이 저지하여 중단된 사건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음.
5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김만수 희생사건 (직다-2808, 김만수)	김○○ (남, 21)	석곡면 염곡리	전문	곡성경찰서 기동대 장	진술조서 (2010.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 경력 - 1949. 4. 14 곡성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61. 7. 19에 경사로 퇴직함. 특히 1951. 3월부터 3년 동안 곡성경찰서 기동대장으로 근무하였음. • 진술내용 - 경찰로 재직 당시 정갑준이 옥과지서장이었음. 하지만 경찰토벌대가 무창리 강변에서 옥과지서에 수감되어 있던 15명이 사살당할 때 정갑준이 저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음. - 경찰토벌대는 정모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었음. - 보안계장이 토벌대장 지휘를 맡았고, 서장 지시에 의해서 작전이 이루어지고, 인원은 보통 70~80명 정도로 편성되었음. - 당시 무고한 양민 학살은 토벌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토벌대와 함께 출동한 사찰계 직원에 의하여 발생하였음.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6		정○○ (남, 11)	목사동면 수곡리	시신목격	주민	진술조서 (2009.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고규석은 좌익과는 무관한 평범한 농부였음. • 희생시기 : 1948. 11. 21. • 희생장소 : 목사동면 평리 다리거리 텃밭 • 가해주체 : 목사동지서 경찰 • 희생이유 : 반란군의 강압으로 길을 안내해주고 목사동지서에 자진 신고하러 갔다가 사살당하였음. • 시신수습 : 등교 중 다리거리 텃밭에 가마니에 덮인 시신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나중에 그 시신이 동기생인 고춘석의 형 고규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희생규모 : 고규석 1명
7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고규석 희생사건 (직다-5416, 고규석)	홍○○ (남, 22)	목사동면 근무	전문	곡성경찰 서 경찰	진술조서 (2010.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 경력 - 한국전쟁 발발 전부터 곡성경찰서, 오곡면지서 등 곡성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행정경찰이었기 때문에 서류 작성 등 내근을 많이 하였음. • 진술내용 - 여순사건 발발 후 곡성에서 순천으로 자리를 나갔다가 반군이 무기 등에서 우세하여 곡성으로 도피하였음. - 목사동지서에서 4번이나 근무하였는데 참고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양민을 죽인 일은 없었음. - 수곡리는 산중에 있는 마을로 고씨들이 많이 거주하였음. - 수곡리에 좌익이 많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다만 주민들은 밤에 어쩔 수 없이 반란군에게 협조해야 했음.
8	곡성군 옥과면 율사리 박판순 희생사건 (직다-6758, 박판순)	박○○ (여, 17)	옥과면 율사리	시신목격	주민	진술조서 (2007.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박판순은 율사리 금단마을의 금단보(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로 독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를 관리하였음. • 희생시기 : 1949.7.26(음 7.1)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8	곡성군 옥과면 율사리 박판순 희생사건 (직다-6758, 박판순)	박○○ (여, 17)	옥과면 율사리	시신목격	주민	진술조서 (2007.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장소 : 옥과면 율사리 옥과천 • 가해주체 : 옥과지서 경찰토벌대(경찰과는 다른 토벌대 복장을 하고 있었음) • 희생이유 : 반란군으로 오인 • 시신수습 : 시신의 가슴에 총상이 있었음. • 희생규모 : 박판순 1명
9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신삼균 등 4명 희생사건 (직다-8020, 신삼균, 정명일, 김기태, 신흥균)	박○○ (남, 13)	죽곡면 원달리	희생목격	주민	진술조서 (2010.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아내 박애순과 함께 살고 있었음.(제적등본에는 혼인 기록이 없음) • 희생시기 : 1949. 10. 10(음 8.19) • 희생장소 : 원달리 구 마을회관 앞 개울 • 가해주체 : 군인(철모에 흰 띠를 두르고 있었음) • 희생이유 : 희생자 4명의 아내들이 고추장과 된장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곡성경찰서에 감금되었고, 그때 반란군이 곡성경찰서를 습격하였음. 이에 군인들이 그 보복으로 그 남편들을 학살하였음 • 희생규모 : 신삼균, 정명일, 김기태, 신흥균 등 4명 • 목격사항 : 군인들이 마을사람들을 개울가로 집결 시킨 뒤 신삼균, 정명일, 김기태, 신흥균 4명을 개울로 끌어내어 총에 쏘은 칼로 찔렀음. 그 뒤 희생자의 가족을 끌어내어 다시 칼로 찌르게 하였음.
10		정순학 (여, 21)	죽곡면 원달리	희생목격	형수	진술조서 (2010.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신삼균은 참고인의 시동생으로 당시 성명미상의 여인과 함께 살고 있었음. • 희생시기 : 1949. 10. 10(음 8.19) • 희생장소 : 원달리 구 마을회관 앞 개울 • 가해주체 : 군인 • 희생이유 : 특정한 이유가 없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10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신삼균 등 4명 희생사건 (직다-8020, 신삼균, 정명일, 김기 태, 신흥균)	정순학 (여, 21)	죽곡면 원달리	희생목적	형수	진술조서 (2010.1.11.)	없음. • 시신수습 : 가족이 수습. • 희생규모 : 희생자 신삼균 등 3명 • 목격사항 : 군인들이 마을사 람들을 개울 앞으로 집결시키 고, 희생자를 끌어내어 칼로 찔 러 죽였음.
11		신석균 (남, 14)	죽곡면 남양리	사망목적	부친	진술조서 (2010.1.11.)	• 희생자 인적사항 : 신봉옥은 평범한 농부였음. • 희생시기 : 1950. 3. 9(음 1.21) • 희생장소 : 희생자 자택 • 가해주체 : 죽곡지서 경찰 • 희생이유 : 고문 후유증 • 시신수습 : 수습함 • 희생규모 : 1명 • 목격사항 : 희생자 신봉옥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던 모습,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모 습, 그로 인해 사망한 모습을 목 격하였음.
12	곡성군 죽곡면 남양리 신봉옥 희생사건 (직다-8844, 신봉옥)	박○○ (남, 24)	목사동면 신기리	15연대 주둔목적	죽곡지서 경찰	진술조서 (2010.4.8.)	• 참고인 경력 - 여순사건 직후 죽곡지서 경찰 로 근무하였음. • 진술내용 - 1948. 11월 또는 12월경 죽곡 지서에 철모에 죽을 사(死)자 쓰 인 흰 띠를 두르고 있는 15연대 1개 중대가 주둔하였고, 곡성경 찰서 경찰들과 함께 합동작전을 펼쳤음. 반군을 잡으면 곡성경찰 서 사찰계로 인계하였음. 경찰도 벌대가 도망가는 사람을 쏘는 등 애매한 사람을 많이 죽였음. - 1949년에 빨치산들이 곡성경 찰서를 습격하였고, 이때 경무 계장이 사망하였음. - 여순사건 발발 후 죽곡면에서 반란군에게 협조하였다고 자진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서 에서 고맙다고 했지, 고문하거 나 하는 일은 없었음.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구례군							
13	구례군 구례읍 양정지구 파도리 주민 희생사건 (직다-473, 직다-606, 표귀종)	박○○ (여, 22)	토지면 파도리	함께 구례 경찰서로 끌려가 사건목격	주민	진술조서 (201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 표귀종은 농부였음.• 희생시기 : 1948. 11. 20(음 10,20)• 연행장소 : 구례경찰서• 가해주체 : 군인• 희생이유 : 구례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반란군 협조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끌려가 행방불명되었음• 희생규모 : 파도리의 표귀종, 장응벽, 장일수, 현세중, 이중환, 이중환의 처 2명 등 7명이 함께 끌려가 행방불명되었음.• 사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8. 11. 19. 밤에 마을 앞 동방천에서 군인과 반란군이 전투를 하였음. 다음날 아침 군인들이 마을주민들을 차에 싣고 구례경찰서로 이송하였음.- 표귀종이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어리숙한 이○○에게 마구잡이로 반란군 협조자를 지목하게 하는 수사방식에 항의한 뒤 심하게 구타당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음.- 그 뒤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이주시켰음.
14		이○○ (남, 13)	토지면 파도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 표귀종은 마을에서 똑똑한 인물로 농부였음.• 희생시기 : 1948. 11. 20(음 10,20)• 연행장소 : 구례경찰서• 가해주체 : 군인• 희생이유 : 구례경찰서로 연행된 뒤 표귀종은 군인들의 조사방식에 항의한 뒤 끌려가 행방불명되었음.• 희생규모 : 표귀종, 장응벽, 장일수, 이중환의 처 2명 등 5명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14	구례군 구례읍 양정지구 파도리 주민 희생사건 (직다-473, 직다-606, 표귀중)	이○○ (남, 13)	토지면 파도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1.13.)	이 끌려가 행방불명되었음. • 사건내용 - 1948. 11. 19. 밤새도록 총소리가 났고, 다음날 군인들이 마을로 들어와 주민들을 구례경찰서로 연행하였음. - 군인들이 다른 마을 주민인 이○○에게 반란군 협조자를 지목하라고 하자 표귀중이 일어나 이○○가 다른 마을 주민이라고 항의하자 군인들이 표귀중을 끌어내었음. - 사건발생일이 참고인 집안 시제일이었고, 시제를 지내기 위해 산에 갔다가 구례경찰서에 끌려갔다 돌아온 형님 이○○에게 전해 들었음.
15	구례군 간전면 간문천변 희생사건 (직다-911, 김길동, 김길수 인지된 희생자 최대흥)	한○○ (남, 14)	간전면 금산리	연행목격	주민	진술조서 (2010.2.17.)	• 희생자 인적사항: 김길동, 김길수는 김순심의 오빠로, 참고인보다 6~7세 연상으로 금산리 용지동 마을에서 거주하였음. • 희생시기: 여순사건 발발 후 음력 10월경 • 희생장소: 간전초교 맞은 편 등산 • 희생경위: 사건 당일 국군이 금산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을 모두 현재 효곡교회 아래 논으로 소집한 뒤 손을 뒤로 묶어 간전 국민학교로 이송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 군인들이 간전초교 맞은편 등산에 호를 판 후 끌고 간 주민들을 기관총으로 학살하였음. 이때 김순심의 오빠인 김길동, 김길수도 끌려가 희생당했음. • 가해주체: 국군 • 희생이유: 여수14연대가 간전면 효곡리, 논곡리, 금산리 등지에서 1박하다 12연대가 포위하여 체포된 다음날 마을주민들이 국군에게 끌려갔음. • 시신수습: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기억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15		한○○ (남, 14)	간전면 금산리	연행목적	주민	진술조서 (2010.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규모 : 당시 금산마을 50호 집집마다 한 명씩은 끌려가 희생되었던 것으로 기억
16		윤○○ (여, 13)	간전면 수평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김길동, 김길수는 김순심의 오빠임. • 희생시기: 여순사건 당시 • 희생장소: 간전국민학교 건너편 • 희생경위: 군인이 금산리 주민들을 끌고가서 간전국민학교 건너편에서 학살하였음. • 가해주체: 국군 • 희생이유: 모름 • 시신수습: 2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하였음. • 희생규모: 모름
17	구례군 간전면 간문천변 희생사건 (직다-911, 김길동, 김길수 인지된 희생자 최대홍)	최기홍 (남, 11)	간전면 양천리	전문	동생	진술조서 (2010.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형 최대홍은 사건 당시 동방천 다리를 건설하는 부역에 동원되어 작업중이었음. • 희생시기 : 1948. 11. 23 • 희생장소 : 간전국민학교 뒤편 대평마을 냇가 • 가해주체 : 제12연대 군인 • 희생이유 : 동방천에서 사역 도중 사로잡힌 반군의 지목으로 인해 반군에 협조했다고 오해받았음. • 시신수습 : 수습하여 양천리 뒷산에 묘를 썼음 • 희생규모 : 다수가 사살당했고, 양천리 주민 남정권·남정삼 형제도 이때 사살당했음.
18		이○○ (남, 11)	간전면 양천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최대홍은 평범한 농부 • 희생시기 : 1948년 겨울 • 희생장소 : 간전국민학교 뒤편 대평마을 • 가해주체 : 군산 12연대 • 희생이유 : 동방천에서 사역 도중 희생당하였음. • 시신수습 : 수습하여 양천리에 매장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19	구례군 간전면 간문천변 희생사건 (직다-911, 김길동, 김길수 인지된 희생자 최대홍)	한○○ (남, 11)	간전면 양천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농사지음. 평소 어리숙한 모습으로 동네 사람들의 놀림이 되기도 함. • 희생시기 : 1948년 겨울 • 희생장소 : 간전국민학교 뒤 대평마을 • 가해주체 : 군산 12연대 • 희생이유 : 동방천에서 사역 도 중 사로잡힌 반란군의 지목으로 인해 오해를 받아 사살당했음. • 희생규모 : 다수 사살된 같은 마을 주민 남정권·남정삼 형제 도 이때 사살당했음.
20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도재덕 가족 3명 희생 사건 (직다-2408, 도재덕, 도광열, 도광옥)	김○○ (남, 16)	구례읍 봉서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도재덕은 좌익이나 우익활동을 하지 않은, 평범한 농부였음. • 희생시기 : 1948년 겨울 • 희생장소 : 봉서리 도재덕 자택 • 가해주체 : 반란군과 제12연대 • 희생이유 : 반란군과 제12연대가 교전을 벌이던 중 마을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한 도재덕의 집으로 날아온 총알에 맞아 가족 3명이 사망하였음. • 시신수습 : 친척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렀음. • 희생규모 : 도재덕과 아들 도광열, 도광옥 등 3명
21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도재덕 가족 3명 희생 사건 (직다-2408, 도재덕, 도광열, 도광옥)	정○○ (남, 16)	구례읍 봉서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도재덕은 좌익이나 우익활동을 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음. • 희생시기 : 1948. 11. 19(음 10.19) • 희생장소 : 봉서리 도재덕 자택 • 가해주체 : 제12연대 군인 • 희생이유 : 반란군과 교전 중 이던 군인들이 도재덕의 집에 나무가 많이 쏘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속에 반란군이 있는지 모른다며 총을 쏘았고, 방안에 있던 도재덕과 두 아들이 총을 맞았음. • 시신수습 : 마을사람들이 수습 • 희생규모 : 도재덕, 도광열, 도광옥 등 3명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22	구례군 산동면 원촌국 민학교 뒷산 박판옥 희 생사건 (직다-2433, 박판옥)	양○○ (남, 12)	산동면 좌사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박판옥은 좌사리 당동마을 이장이었음. • 희생시기 : 1949년 겨울 • 희생장소 : 원촌국민학교 뒤 꽃쟁이 • 가해주체 : 제3연대 군인 • 희생이유 : 모름 • 시신수습 : 수습 • 희생규모 : 시신이 많았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좌사리 원좌 마을에 살던 한기범 외에 신원을 아는 희생자는 없음.
23		임공순 (여, 27)	산동면 좌사리	시신수습	처	진술조서 (2010.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박판옥은 좌사리 당동마을 이장이었고 농부였음. • 희생시기 : 1949. 12. 17(음 10,28) • 희생장소 : 원촌국민학교 뒷산 • 가해주체 : 군인 • 희생이유 : 빨치산에게 밥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사살당하였음. • 시신수습 : 사건발생 후 3년 이 지나 한쪽 다리와 손, 그리고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몸체만 남은 시신을 옷으로 식별하여 수습하였음. • 희생규모 : 좌사리 원좌마을 의 한기범 등 5-6구의 시신이 있었음.
24		김상우 (남, 12)	산동면 좌사리	전문	사위	진술조서 (2010.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박판옥은 좌사리 당동마을 이장이었고, 농부였음. • 희생시기 : 1949. 12. 17(음 10,28) • 희생장소 : 원촌국민학교 뒤 꽃쟁이 • 가해주체 : 제3연대 군인 • 희생이유 : 모름 • 시신수습 : 수습 • 희생규모 :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좌사리 원좌 마을에 살던 한기범만 기억남.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25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임태규 희생사건 (직다-2723, 임태규)	김진옥 (남, 16)	마산면 황전리	시신수습	생질	진술조서 (2007.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임태규는 여순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구례 대한청년단장이었으며, 산판업에 종사하였음. • 희생시기 : 1949년 봄 • 희생장소 : 구례농고 옆 '잣거리(거제리)' 개울가 • 가해주체 : 제12연대 군인 • 희생이유 : 산판업허가권을 놓고 경쟁자가 중상모략을 하여 빨치산 협조자로 고발당해 사살당했음. • 시신수습 : 참고인과 희생자 부친 등이 수레로 수습하였음. • 희생규모 : 임태규 1명
26		이○○ (남, 14)	간전면 중대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임아지는 같은 마을 주민이었음. • 희생시기 : 1949년 음력 6월경 • 희생장소 : 중대리 임아지 소유에서 총상을 입은 뒤 자택에서 사망 • 가해주체 : 군인, 사건 당시 15연대 1대대 3중대가 마을 건너편에 있는 간문국민학교에 주둔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희생이유 : 빨치산으로 오인 • 시신수습 : 수습 • 희생규모 : 1명
27	구례군 간전면 중대리 임아지 희생사건 (직다-8779, 임아지)	윤○○ (남, 13)	간전면 중대리	시신목격	주민	진술조서 (2010.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임아지는 참고인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였고, 사건 당일 참고인의 모내기를 도와주었음. • 희생시기 : 1949년 음력 6월경, 사건발생 후 군인들이 참고인의 집으로 와서 참고인의 부친으로 하여금 임아지를 지게로 운반하게 하였음. • 희생장소 : 총상 후 자택에서 사망 • 가해주체 : 군인 • 희생이유 : 밤에 논에 물을 대고 있다가 빨치산으로 오인 받아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 수습 • 희생규모 : 1명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28	구례군 간전면 동방천 임창순 희생사건 (직다-10133, 임창순)	임상진 (남, 19)	산동면 좌사리	전문	7촌	진술조서 (201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임창순은 여순사건 발발 전 좌사리 상관 마을 이장이었음. • 희생시기 : 1949년 추석 이전 • 희생장소 : 구례군 간전면 동방천 • 가해주체 : 경찰과 경찰이 동원한 간전면 주민들 • 희생이유 : 산 속에 숨어 있던 임창순과 구○○이 빨치산 연락책이라는 이유로 산동지서 경찰에게 끌려간 뒤 구○○은 풀려났고, 임창순은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음. • 희생규모 : 임창순과 신원불상자 등 2명 • 전문내용 : 여순사건 당시 산동면 상관마을 주민으로 경남 하동 화개에 자주 왕래하던 박○○에게 전해 들음. 박○○가 간전면 동방천을 지날 때 두 사람이 경찰과 경찰이 동원한 간전면 주민들에게 돌과 몽둥이로 맞아 죽는 모습 목격하였음.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산동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임창순 가족에게 연락하였음.
29		이○○ (남, 19)	산동면 좌사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임창순은 마을이장이었고, 좌익이나 우익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음. • 희생시기 : 1948년 음력 9~10월경 • 희생장소 : 군부대 본부가 있던 산동면소재지인 원촌리 누에고치 창고로 끌려갔다가 간전면에서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 가해주체 : 군산 12연대 • 희생이유 : 이유는 모르지만 마을에서 임창순과 구○○이 함께 끌려갔다가 구○○은 풀려나오고 임창순은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 수습하였음. • 희생규모 : 모름.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30	구례군 산동면 시상리 꽃쟁이재 구정길 희생 사건 (미신청, 구정길)	구자용 (남, 1949년생)	산동면 내산리	전문	아들	진술조서 (2010.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구정길은 서울 체신위원양성소를 졸업하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음. • 희생시기 : 1948. 11. 17. 연행된 뒤 희생당했음. • 희생장소 : 산동면 내산리 수평마을 18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 14명이 원촌리 누에고치 판매장으로 연행되어 심문을 받았고, 그뒤 산동면 시상리 상신마을 꽃쟁이재에서 사살당했음. • 가해주체 : 원촌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제3연대 군인 • 희생이유 : 1948. 11. 15. 12연대장이 반군에게 포위되어 사망하였음. 그에 대한 보복으로 군인들이 산동면 일대의 젊은 남자들을 사살하였음. • 시신수습 : 구정길의 부친과 숙부가 꽃쟁이재 송진막에서 시신을 수습하였음. • 희생규모 : 다수
31		구정문 (남, 21)	산동면 내산리	구금목격	4촌	진술조서 (2010.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구정길은 서울에서 체신학교를 졸업하고 산동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음. • 희생시기 : 1948. 11. 17. 제3연대 군인들이 17세 이상 40세 미만 남성들을 연행하였고, 그뒤 동짓날 무렵 희생당하였음. • 희생장소 : 산동면 시상리 상신마을 꽃쟁이재 • 가해주체 : 제3연대 군인 • 희생이유 : 모름 • 시신수습 : 구정길의 부친과 숙부가 꽃쟁이에서 수습하였음. • 희생규모 : 다수로 추정 • 목격사항 : 사람들이 모여 심문을 받던 장소인 산동면 원촌리 누에고치 창고에서 같이 심문받았음.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32	구례군 산동면 시상리 꽃쟁이재 구정길 희생 사건 (미신청, 구정길)	한봉금 (여, 22)	산동면 시상리	시신수습 장면목격	이모	진술조서 (201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구정길은 서울의 체신학교를 졸업한 뒤 산동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음. • 희생시기 : 1948년 동짓달 • 희생장소 : 참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산동면 시상리 상신부락 꽃쟁이. 당시 군인들이 타 마을 주민들을 꽃쟁이로 끌고 와서 많이 죽였음. • 가해주체 : 군인 • 시신수습 : 구정길의 부친과 숙부가 시신을 수습하였음. 참고인은 시신을 덮는 흙이불을 마련하였고, 시아버지가 대나무를 엮어서 발을 만들었음.

담양군

33	담양군 대덕면 중례골 고광율 희생사건 (다-438)	최○○ (여, 30)	고서면 교산리	연행장면 목격	주민	진술조서 (2010.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옆집에 살던 고광율은 농민이었고, 좌익 활동을 조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희생시기 : 1948년인지 1949년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음력 8. 15. 추석날 아침 끌려 갔음. • 희생장소 : 대덕면 옥천마을 앞산 골짜기 • 가해주체 : 고광율이 담양경찰서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음. • 시신수습 : 가족들이 수소문 끝에 옥천마을 앞산 골짜기에서 사살당한 시신을 수습해왔음. 사건현장에는 시신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음. • 희생규모 : 교산리 마을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 40~50여 명
34		고광필 (남, 20)	고서면 교산리	시신수습	동생	전화면담 (200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형 고광율은 야학이나 협동농장 활동 등 당시 진보적인 활동을 했음. • 희생시기 :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음력 8. 15.에 끌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34	담양군 대덕면 중례골 고광율 희생사건 (다-438)	고광필 (남, 20)	고서면 교산리	시신수습	동생	전화면담 (2009.5.4.)	<p>려가 8, 16. 사망하였고, 제삿날은 음력 8,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장소 : 대덕면 옥천마을 앞산 골짜기 • 가해주체 : 담양경찰서 경찰 • 시신수습 :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소문이 난 곳에 가니 시신들이 흙에 덮혀 있었고, 흙을 걷고 형수님이 직접 짠 베옷과 담배쌈지를 보고 시신을 수습하였음. • 희생규모 : 당시 시신이 20여 구 있었음.
35		고영자 (여, 11)	고서면 교산리	전문	딸	전화면담 (2009.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부친 고광율은 어떤 단체 활동을 하다가 자수하였고, 경찰이 부친을 불러 따라 나갔다가 희생당했음. • 희생시기 : 1950년 음력 8, 15. • 희생장소 : 담양군 무정면 오례 인근 야산이라고 들었음. • 시신수습 : 모친과 숙부 고광열 등 가족들이 부친이 소지하던 베와 담배쌈지로 식별하여 시신을 수습해왔음.
36		최○○ (남, 13)	대덕면 문학리	사건현장 목격	사건현장 인근주민	진술조서 (2010.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희생자들은 고서면, 남면 등지에서 끌려온 담양지역 주민들이라고만 알고 있고, 정확한 인적사항은 알지 못함. • 희생시기 : 1949년 추석 전후 • 희생장소 : 대덕면 문학리 옥천마을 중례골 • 참고인 목격 및 전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순사건 발발 후 1949년 추석 무렵에 한 번, 추석 후에 두 번 사람들이 트럭에 실려 와서 중례골에서 희생당했음. - 1949년 추석 무렵 아침 9시 경 총성이 들렸고, 군인과 경찰이 떠난 뒤에 사건현장인 중례골로 올라가서 시신들이 웅덩이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목격하였음.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36	담양군 대덕면 중례골 고광울 희생사건 (다-438)	최○○ (남, 13)	대덕면 문학리	사건현장 목격	사건현장 인근주민	진술조서 (2010.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가량 지난 뒤 가족들이 중례골로 찾아와서 시신을 수습해가거나 근처에 매장하였음. • 가해주체 : 군인과 경찰 • 희생규모 : 구덩이 세 곳에 매장된 시신들이 각각 70여 구, 50여 구, 20여 구였음.
37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용구마을 12명 희생사건 (다-8524, 김점술, 김종철, 박군 상, 강용구 등 12명)	남○○ (남, 16)	대전면 서옥리	대전지서에 수감된 부친 남귀 동 목격	주민	진술조서 (2010.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희생자 12명은 모두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평범한 농민이었음. • 희생시기 :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고, 한국전쟁 발발 전 반란군들이 활동할 때임. • 희생장소 : 수북면 주평리 용구마을 뒷산 • 가해주체 : 담양경찰서 경찰 • 희생이유 : 반란군에게 끌려갔다 풀려난 ○○○이 서옥리 주민 15명이 반란군한테 협조했다고 신고하였음. 김점술 등 15명이 대전지서에 끌려간 뒤 담양경찰서로 이송되어 심한 구타를 당했음. 그 뒤 남귀동 등 3명은 풀려났고, 12명은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 주평리 주민들이 알려주어서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음. • 희생규모 : 김점술, 김종철, 박군상, 강용구, 김달마, 김기팔, 김우명 등 12명
38		김○○ (남, 19)	대전면 서옥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4.29.)	
39		강상구 (남, 15)	대전면 서옥리	전문	강용구 동생	진술조서 (2010.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김점술 등 서옥리 1, 2구 주민 12명은 모두 농민이었음. • 희생시기 :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 희생장소 : 월산면 도동고개 • 가해주체 : 순창에서 넘어온 군인으로 들었지만 군인인지 경찰인지 확실히 알지 못함. • 시신수습 : 12구의 시신을 가족들이 모두 수습했음.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40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용구마을 12명 희생사건 (다-8524, 김점술, 김종철, 박군 상, 강용구 등 12명)	이현숙 (여, 26)	대전면 서옥리	시신수습	김종철 처 (대표 신청인)	진술조서 (2010.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김종철은 농민이었음. • 희생시기 : 1949. 10. 24.(음력9.3.) • 희생장소 : 수북면 주평리 용구마을 • 가해주체 : 대전지서 경찰들이 서옥리 주민 15명을 대전지서로 연행하여 고문한 뒤 담양경찰서로 이송하였음. 그 뒤 3명은 석방되었고, 나머지 12명은 희생당했음. 순창에서 담양으로 넘어왔던 군인들이 담양경찰서에 도착해서 갇혀있던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나가는 했지만 가해자가 경찰인지 군인인지는 확실치 않음. • 희생이유 : 좌익이라고 무고당했음. • 시신수습 : 유가족이 수습했음. 칼에 찔린 시신이 3-4구씩 나무에 묶인채 발견되었으며,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음. • 희생규모 : 김점술, 김종철, 박군상, 강용구, 김달마, 김기팔, 김우명, 김용덕, 문○○(문도연 차남), 박○○(박군수 동생), 김○○, ○○○(성명미상자) 등 12명
41		박성기 (남, 2)	대전면 서옥리	전문	박군상 동생 (대표 신청인)	진술조서 (2010.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내용 :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음력 9. 3. 형 박군상 등 서옥리 주민들이 좌익 혐의를 받고 경찰에게 끌려가서 군인 또는 경찰에 의해 칼에 찔려 희생당함. • 시신수습 : 부친 등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음.
42		김○○ (남, 22)	용면 추성리	전문	담양경찰 서 경찰	진술조서 (2010.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 경력 - 한국전쟁 발발 전에는 대한청년단원으로 지서 등지에서 보조근무 등을 했고, 1950. 10월 초순부터 몇 년 동안 의경 및 경찰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42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용구마을 12명 희생사건 (다-8524, 김점술, 김중철, 박균 상, 강용구 등 12명)	김○○ (남, 22)	용면 추성리	전문	담양경찰 서 경찰	진술조서 (2010.4.28.)	로 활동하였음. •참고인 진술내용 - 여순사건 당시 담양군 용면은 조용한 편이었고, 수북면 주평 리 용구마을 희생사건이나 대덕 면 문학리 중례골 희생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보성군							
43		이용우 (남, 14)	겸백면 수남리	시신수습 해오는 장면목격	주민	진술조서 (201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이병규는 농민이었음. • 희생시기 : 1948. 9월경 • 희생장소 : 겸백지서 • 희생이유 : 여순사건이 발생 하기 전에 겸백지서가 좌익들에 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그 사건으로 경찰들이 좌익 활 동가들을 연행해 갔으며, 이병 규도 당시 연행되어 희생당했 음. 이병규가 방화 사건에 가담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 가해주체 : 겸백지서 경찰 • 시신수습 : 시신 수습해오는 장면 목격
44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이병규 희생사건 (직다-8277(1), 이병규)	조채임 (여, 26)	겸백면 수남리	시신목격	형수	진술조서 (201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이병규는 특별한 단체 활동을 하지 않은 평범한 농민이었음. • 희생시기 : 1948년으로 정확 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함. • 희생장소 : 겸백지서 • 희생이유 : 특별한 좌익활동 을 하지 않았음. 당시에는 특별 한 죄를 짓지 않아도 경찰에게 끌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음. • 가해주체 : 겸백지서 경찰 • 시신수습 : 수습해온 시신을 목격하였음. • 희생규모 : 수남리 청년 여러 명이 이병규와 함께 겸백지서로 끌려갔으며, 그 중 두 사람은 보 성경찰서로 끌려가 사망했다고 들었음.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45	보성군 벌교읍 소화다리 조동석 희생사건 (마-7641)	조영자 (여, 19)	낙안면 상송리	시신목격	조카	진술조서 (2010.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 1948. 11월 초순경 (제삿날은 음9.27, 양10.29.) • 사건내용 : 진압군이 부역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낙안, 벌교 일대의 남성들을 면 지서에 소집함. 참고인의 부친 조한송(이명 조동표)과 조동석이 이때 불려갔으며, 조한송은 인민위원장을 했다는 오해를 받아 면 지서에서 사살당했음. 조동석은 부역자 혐의를 받은 사람 중 동명이인(동림동 출신 조동석)이 있어 오해를 받고 부역자로 분류되어 조한송이 사망한 후 약 3일이 지나 소화다리에서 사살당했음 • 시신수습 :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음.
46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유제경 희생사건 (마-8364)	이○○ (남, 23)	득량면 정흥리	지서로 함께 연행	주민	진술조서 (201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유제경은 보성농업실업학교 재학 중이었음. • 희생시기 : 1948. 10월 말 • 희생장소 : 득량지서 옆 산 • 사건내용 : 사건발생 전 득량면에서 흥동마을 주민 김○○, 유제경이 참석한 인민재판이 열렸고, 이때 ○○○, ○○○ 등 3명이 희생당했음. 그 뒤 진압군이 반군을 체포하기 위하여 마을을 포위하고 마을주민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서로 끌고 갔음. 인민재판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유제경을 좌익으로 지목하여 유제경이 경찰과 진압군에게 사살당했음. • 가해주체 : 진압군과 득량지서 경찰 • 희생이유 : 좌익 활동 혐의
47		안○○ (남, 17)	득량면 정흥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유제경은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고, 부유한 편이었음. • 희생시기 : 1948. 음력 11월 중순경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47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유제경 희생사건 (마-8364)	안○○ (남, 17)	득량면 정흥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장소 : 득량지서에서 보성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의 기러기재 • 가해주체 : 득량지서 경찰 • 희생이유 : 반군에게 밥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사살당했음 • 시신수습 : 사건발생 다음날 유제경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서 집안 일꾼들이 집으로 시신을 수습해왔음. • 희생규모 : 유제경 혼자만 희생당했음.
48		이○○ (남, 11)	득량면 도촌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내용 : 유제경은 이웃마을인 정흥리 주민으로,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유제경을 끌고 가서 죽였다고 들었음.

순천시

49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윤주한 희생사건 (직다-9106, 윤주한)	윤영근 (남, 11)	해룡면 용전리	목격	당질	진술조서 (2010.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내용 : 윤주한은 매산중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1949년 8월경 구타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 형무소에서 돌아왔을 때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였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받아내었음. 참고인이 직접 간병하였음.
50		김○○ (남, 19)	해룡면 용전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내용 : 윤주한은 여순사건 발발 이후 행방불명된 후 사망했다는 소문을 들었음.
51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 이영근 등 7명 희생사건 (직다-10584, 이영근)	임○○ (남, 17)	송광면 월산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0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이영근은 농사를 짓던 마을 어른 • 희생시기 : 1949년 음력 8월 말 • 희생장소 : 송광면 월산리 추동마을 질등재 • 가해주체 : 백골부대 • 희생이유 : 마을사람을 모아 놓고 심문 후 이영근 등 30~40대 남자 9명을 빨치산 협력자라 판단하고 질등재로 끌고 갔고, 이영근 등 7명을 칼로 찔러 죽였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51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 이영근 등 7명 희생사건 (직다-10584, 이영근)	임○○ (남, 17)	송광면 월산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09.2.2.)	고, 양재욱과 김주열 등 2명은 생환하였음. • 시신수습 : 가족들과 마을주 민들이 모두 수습하였음. • 희생규모 : 연행자 9명 가운 데 7명 사망.(이영근, 염순섭, 강 대영, 양영묵, 김우열 외 2명)
52		양재욱 (남, 1)	송광면 월산리	전문	양영묵 아들	진술조서 (2009.2.7.)	• 희생자 인적사항 : 이영근 등 마을 어른들이 부친 양영묵과 함께 희생당했음. • 희생시기 : 1949. 10. 22(음 9.1) • 희생장소 : 송광면 월산리 추 동마을 질등재 • 가해주체 : 15연대 소속 백골 부대 • 희생이유 : 마을사람을 모아 놓고 유도심문 후 반란군이라 판단하고 질등재로 끌고 가 대 검으로 찢러 죽였음. • 시신수습 : 모친 등 가족들이 수습 • 희생규모 : 연행자 9명 가운 데 7명 사망(이영근, 염순섭, 강 대영, 양영묵, 김우열 외 2명)
53		강봉원 (남, 17)	외서면 쌍율리	시신수습	강대영 아들	진술조서 (2009.2.7.)	• 희생자 인적사항 : 이영근 등 마을 어른들이 부친 강대영과 함께 희생당하였음. • 희생시기 : 1949.10.22(음 9.1) • 희생장소 : 송광면 월산리 추 동마을 질등재 • 가해주체 : 백골부대 • 희생이유 : 마을사람을 모아 놓고 유도심문을 한 뒤 반란군 이라 판단하고 질등재로 끌고 가 칼로 찢러 죽임. • 시신수습 : 모두 수습하였음. • 희생규모 : 연행자 9명 가운 데 7명 사망.(이영근, 염순섭, 강 대영, 양영묵, 김우열 외 2명)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54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 이영근 등 7명 희생사건 (직다-10584, 이영근)	염호인 (남, 7)	송광면 월산리	시신목격	염순섭 아들	진술조서 (2009.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이영근 등 마을 어른들이 아버지 염순섭과 함께 희생당하였음. 이영근은 마을이장이었음. • 희생시기 : 1949. 10. 22(음 9.1) • 희생장소 : 송광면 월산리 추동마을 질등재 • 가해주체 : 15연대 군인 • 희생이유 : 마을사람을 모아 놓고 유도심문 후 반란군이라 판단하고 질등재로 끌고 가 칼로 찔러 죽임. • 시신수습 : 수습 • 희생규모 : 연행자 9명 가운데 7명 사망(이영근, 염순섭, 강대영, 양영목, 김우열, 윤송치, 하경식)

신안군

55	신안군 하의면 상태서리 박정은 희생사건 (직다-7788, 박정은)	박○○ (남, 27)	하의면 상태서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박정은은 50세 정도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음. • 희생시기 : 1948. 11월 초 • 희생장소 : 하의면 상태동리 '가라깨' 마을 • 가해주체 : 하의지서 경찰 • 희생이유 : 박정은은 14연대 군인 박만득의 사촌형이란 이유로 희생당했음. • 희생과정 : 박정은의 사촌동생이자 14연대 군인이었던 박만득이 여수사건 발발 후 고향인 상태서리로 피신하자 하의지서 경찰들이 마을 수색 중 박정을을 사살하였음. 그 다음날 박만득도 산으로 피신하다 경찰에게 사살되었음. • 시신수습 : 가족과 인부들이 시신을 수습하였음.
----	---	----------------	-------------	----	----	----------------------	---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56	신안군 하의면 상태서리 박정은 희생사건 (직다-7788, 박정은)	김○○ (여, 20)	하의면 상태서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박정은은 50세 정도의 어른이었음. • 희생시기 : 1948. 11월 초 • 희생장소 : 하의면 상태동리 '가라깨' 마을 • 가해주체 : 경찰 • 희생이유 : 사촌동생인 14연대 군인 박만득을 숨겨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희생당했음. • 희생과정 : 박만득이 여순사건 발발 후 고향 상태서리로 피신해오자 경찰들이 마을주민들을 모두 동원하고 박만득의 사촌 형 박정을 앞세워 박만득을 찾으려 다녔음. 박만득을 찾지 못하자 경찰이 박정은이 숨겼다면 박정을을 사살하였음. 박정은이 사살당하고 2~3일 뒤 박만득도 금산 밀 '목남7밀'에서 사살당했음. • 시신수습 :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음.

영암군

57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김병남 희생사건 (다-8473, 김병남)	김○○ (남, 15)	금정면 아천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김병남은 남정면소재지인 용흥리에서 약방을 운영하였고,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하였음. • 희생시기 : 한국전쟁 발발 전 • 희생장소 : 광주와 나주 경계인 남평길목 고개 • 희생이유 : 김병남은 특별한 사회활동도 하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었으며, 경찰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음. 당시에는 특별한 죄가 없어도 억울하게 사람이 죽던 시절이었음. • 가해주체 : 김병남은 경찰에 의해 금정면지서로 끌려간 뒤 광주로 이송되었음. • 시신수습: 희생자의 동생 김정도가 김병남이 끌려간 뒤 소
----	---	----------------	------------	----	----	----------------------	---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57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김병남 희생사건 (다-8473, 김병남)	김○○ (남, 15)	금정면 아천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1.22.)	식을 듣고 희생장소에서 시신을 발견해 가매장하였음. 한국전쟁이 끝난 후 시신을 수습하러 갔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함.
58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최윤성 희생사건 (다-8917, 최윤성)	최○○ (남, 17)	금정면 남송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최윤성은 평범한 농민으로 특별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음. • 사건내용 : 한국전쟁 이전 최윤성이 강진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친 최병환 등 가족들이 강진으로 가서 최윤성의 시신을 수습해 왔음. 정확한 희생시기, 가해주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장성군

59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강대석 가족 9명 희생 사건 (다-992, 강대석 등 9명)	기○○ (남, 18)	황룡면 관동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강대석의 가족들은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평범한 농민이었음. • 희생시기 : 연도는 기억나지 않고, 10월경 • 희생장소 : 황룡면 관동리 속은마을 강대석 자택 • 가해주체 : 경찰 • 희생이유 : 반군에게 밥을 해주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 박동구 등 마을주민이 7명의 시신을 수습하였음. 강대석의 딸 강점희와 손주 강○○는 총상을 당했고, 총알을 제거하지 못해 강점희는 1년 정도 뒤, 손주는 1개월 정도 뒤에 사망하였음. • 희생규모 : 일가족 9명
60		김○○ (남, 18)	황룡면 관동리	시신수습 장면목격	주민	진술조서 (2007.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 강대석 일가는 서씨 선산 산지기였음. • 희생장소 : 황룡면 관동리 속은마을 강대석 자택. 당시 강대석 자택 뒷산이 반란군들의 근거지였음. • 희생시기 : 여순사건 발발 후 가을 무렵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60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강대석 가족 9명 희생 사건 (다-992, 강대석 등 9명)	김○○ (남, 18)	황룡면 관동리	시신수습 장면목격	주민	진술조서 (2007.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해주체 : 장성경찰서 특공대가 밤에 반란군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다가 아침에 마을 앞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음.●희생이유 : 반란군에게 밥을 해주었거나, 밤에 연기가 나니까 반란군들이 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 사건 당일 이른 새벽 총성을 들었고, 그 뒤 마을주민들이 강대석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는 현장을 목격하였음.●희생규모 : 강대석 가족 7여명이 사살당했고, 어린아이 1명은 강대석의 출가한 딸 강점례가 데리고 갔음.
61		최○○ (남, 14)	황룡면 관동리	전문	주민	진술조서 (201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희생자 인적사항 : 강대석의 가족은 농사를 지었고, 산지기였음.●희생시기 : 모름.●희생장소 : 황룡면 관동리●희생이유 : 반란군에게 밥을 해주었기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들었음.●가해주체 : 경찰●시신수습 : 박동구 등 마을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하였고, 참고인은 박동구로부터 사건에 대해 들었음.●희생규모 : 강대석 일가족 8~9명
장흥군							
62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김난금 희생사건 (다-9338, 김난금)	강총백 (남, 21)	장흥읍 금산리	목격 (희생과정)	조카	진술조서 (2010.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희생자 인적사항 : 김난금은 일제시대 때 우체국 집배원을 했고, 사건발생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음.●희생시기 : 1949. 10. 초순●사건내용 : 김난금은 음식을 제공하는 등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마을 주민 30명가량이 소집되어 인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관계	진술형태 (진술일)	
62		강충백 (남, 21)	장흥읍 금산리	목격 (희생과정)	조카	진술조서 (2010.1.20.)	는 논으로 끌려 나가 그곳에서 사살당했음. • 시신수습 : 사건발생 다음날 가족이 수습했음. • 가해주체 : 경찰 • 희생규모 : 마을주민 중 김난 금만 희생당했음.
63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손금태 · 김소례 부부 희생사건 (다-565, 595, 손금태, 김소례)	손복임 (여, 17)	관산읍 농안리	사건목격	조카	진술조서 (2010.1.22.)	• 희생자 인적사항 : 숙부 손금 태는 농민이었음. • 희생시기 : 1950. 2. 5.(음 12.19.) • 희생장소 : 김소례는 농안리 우물가, 손금태는 강 진 누이 집. • 사건내용: 손금태 · 김소례 부부, 손금태의 형수 채분심과 이부접은 관산지서 경찰에 의해 농안리 우물가로 끌려 나갔고, 김소례, 채분심, 이부접은 경찰 에 의해 사살당했음. 손금태는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고 강진 누이 집으로 피신했으나 후유증 으로 몇 달 뒤 사망했음. • 희생이유 : 손금태의 아들 손 용반이 14연대 군인으로 여순사 건 발발 후 행방불명되었고, 조 카가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씨 일가가 많이 희생 당했음. • 가해주체 : 관산읍지서 경찰 • 시신수습 : 김소례 등 3명의 시신은 사건발생 다음날 마을주 민들이 수습했음. 손금태의 시 신은 강진에서 수습해 왔음.

나. 현지 조사

6차례의 현지 조사를 통해 사건발생 현장과 희생 경로를 확인하였고, 신청인 및 참고인
을 면담하였으며,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현지 조사 시(2010. 1. 10.~1. 3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순

천시, 장성군, 목포시, 보성군, 화순군 일대에서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조사, 사건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차 현지 조사 시(2010. 2. 3.~2. 10.) 전남 진도군, 보성군, 고흥군 일대에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 사건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3차 현지 조사 시(2010. 2. 22.~2. 26.) 전라남도 구례군, 순천시, 담양군, 경기도 평택시,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참고인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4차 현지 조사 시(2010. 3. 2.~3. 5.)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보성군, 완도군, 목포시 일대에서 일반 참고인 및 전직 군인과 경찰 참고인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5차 현지 조사 시(2010. 4. 7.~4. 9.)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여수시 일대에서 전직 군인과 경찰 참고인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6차 현지 조사 시(2010. 4. 28.~5. 1.) 전라남도 고흥군, 담양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일대에서 일반 참고인 및 전직 경찰 참고인 진술조사, 사건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조사결과

1. 사건배경

1947년 한국문제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분위가 고조되자 남로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1948. 2. 7. 경인지역, 경남·북 일대, 전남·북 일대와 제주도 등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투쟁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이후 각 지역에서 남로당의 방침에 따라 ‘무장 게릴라대’가 조직되었으며, 이는 ‘남조선 인민유격대’라 불렸다.

남로당원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1948. 2. 7. 투쟁과 5·10단독선거 반대운동 이후 각 지역에서 좌·우익 대립은 점점 깊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군본부가 1948. 10. 19. 오전 7시 여수 제14연대에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항명령을 하달하자 이에 반대하는 14연대 소속 군인 2,000여 명이 반란을 일으킨 ‘여순사건’은 순식간에 여수·순천·보성·별교·광양·구례 등 전남 동부 일대로 확산되었다.

1948. 10. 20. 14연대 반군은 경찰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오전에는 여수를 장악한 뒤 오후에는 순천을 장악하였고, 북쪽으로는 구례, 곡성, 남원, 서쪽으로는 별교, 보성, 화순, 동쪽으로는 광양, 하동 방면으로 전선을 확대해 나갔다. 반군이 점령했던 지역에는 각 면

제 3 권

단위까지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반군과 지방좌익들은 인민재판을 열고 경찰, 공무원, 지역유지 등 우익인사들을 살해하거나 경찰서 등 관공서를 습격하기도 하였다.²⁴⁾

정부는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1948. 10. 21. 본격적인 진압작전을 단행하였다. 진압군은 10. 22. 순천을 탈환한 뒤 10. 24. 보성과 벌교를 진압하였고, 10. 25. 까지 여수를 제외한 주변 지역을 진압한 뒤 10. 27.에는 여수를 완전히 탈환하였다.²⁵⁾

군경은 여순지역을 탈환한 뒤 가장 먼저 반군과 협조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다. 진압군은 주민들을 집결시켜 손바닥에 총을 든 흔적이 있는 자 등을 색출하였고, 경찰, 청년단원, 우익인사 등의 지적을 통해 반군과 협조자를 색출하였다. 반군의 즉결처분이나 인민재판에 앞장섰다고 적발된 이들은 즉석에서 살해당하였고, 나머지는 따로 수용되어 재심사를 받거나 군경에 넘어가 심문과 재판을 받았다.²⁶⁾

1948. 10. 30. 반군토벌전투사령부는 호남방면전투사령부로 개편되었다. 호남방면전투사령부는 지리산을 기준으로 북지구와 남지구로 구분되어 북지구전투사령부는 남원에 설치되었고, 제2여단 소속 제2연대, 6연대의 1개 대대, 15연대의 1개 대대와 제3연대가 배속되었다. 남지구전투사령부는 순천에 설치되었고, 제4연대, 15연대의 1개 대대와 12연대의 2개 대대가 배속되었다. 1949. 3. 1. 호남방면전투사령부는 다시 호남지구전투사령부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로 개편되어 해당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²⁷⁾

1948. 11. 1. 계엄령이 전남·북지역으로 확대되면서 11. 6. 전남지역을 관할하던 전라남도 경찰국은 관내를 일제히 검문, 검색하였다. 또한 포고문을 통해 불법무기 소지자, 반군, 폭도, 불온분자, 은닉자와 더불어 이들에게 식사, 의류, 금품을 제공한 자들은 사살 혹은 기타 형에 처한다고 발표하였다.²⁸⁾ 진압군과 관내의 경찰들은 계엄하에서 부역자 색출과 토벌작전을 수행하면서 마을을 사찰하여 반군과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연행, 구금, 조사, 사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수, 순천, 구례, 광양, 보성, 고흥 등 반군의 점령지와 이동경로에 속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부역자’, ‘반군 협조자’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인과 경찰에게 희생되었다.²⁹⁾

24) 노영기, 『여순사건과 구례 - 여순사건 직후 군대의 주둔과 진압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제68호, 2005, 42쪽.

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1945~1950.6)』(제1권), 1967, 464 - 466쪽.

26)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순천시사-정치사회편』, 1997, 782쪽.

27) 노영기, 『여순사건과 육군의 변화』, 『전남사학』제22집, 2005, 265-266쪽.

28) 동광신문, 1948. 11. 7.

29)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2』, 전남일보사, 1991, 93~95쪽

한편, 반군의 주력부대와 지방좌익들은 1948. 10. 21. 이후 정부의 진압작전이 본격화되자 백운산, 조계산, 지리산 등 주변 산악지대로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면서 인근 지역의 지서, 관공서를 습격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식량과 물자를 약탈하였고, 비협조적인 주민들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서 여순사건 발발 후 전남 일대에서는 수많은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다. 14연대 반군의 점령지역에서 반군과 지방좌익들이 인민재판 등을 통해 우익인사들을 살해하였고, 진압 과정에서 군경이 반군 협조자를 색출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을 사살하였다. 그 뒤 산악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긴 반군과 지방좌익에 의한 빨치산 투쟁이 전개되자 이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산악 부근 마을 주민들이 학살되거나, 빨치산들에 의해 주민들이 학살되었다. 즉, 여순사건 발발 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전남 일대에서는 사실상 전쟁상태가 계속되었다.

2. 진실규명 신청사건 발생장소 · 시기 · 희생자 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된 사건을 신청인 · 참고인 진술조사와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재 여부와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48. 9.부터 1950. 5. 16.까지 전라남도 고흥군 등 11개 지역에서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이 발생하여 진실규명대상자 45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29명 등 총 74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진실규명 신청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대부분 1948. 10. 19. 제14연대 군인에 의한 여순사건 발발 후 한국전쟁 전까지의 시기에 발생하였다. 이 시기 군경은 반군 진압작전과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반군과 이에 가담한 협력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고, 이때 민간인들이 반군에게 밥을 해주었다거나 14연대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진실규명 신청사건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곡성군에서 6건이 발생하여 11명이, 구례군에서 8건이 발생하여 21명이, 담양군에서 2건이 발생하여 13명이, 목포시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보성군에서 3건이 발생하여 3명이, 순천시에서 2건이 발생하여 8명이, 신안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영암군에서 2건이 발생하여 3명이, 장성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일가족 9명이, 장흥군에서 3건이 발생하여 3명이 희생되었다.

제 3 권

이는 신청사건 위주의 조사결과이고, 신청사건 중에서도 구례지역, 순천지역, 보성·고흥지역에서 이미 진실규명된 사건들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의 희생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없다. 본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된 여순사건 현황에 의하면, 전라남도 동부지역인 여수, 순천, 보성, 광양, 고흥 지역이 기타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³⁰⁾ 다만 본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라남도 동부지역 외에 신안, 영암, 장성, 장흥 등지도 여순사건 이후 발생한 민간인 피해사건에서 예외적인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³¹⁾

〈표 4〉는 진실규명 신청사건 발생시기·장소·희생자 수를 사건발생시기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진실규명 신청사건의 발생시기·장소·희생자 수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발생시기	발생장소	희생자 수		비고
					진실규명 대상자	인지된 희생자	
1	직다-8277(1)	보성군 검백면 수남리 이병규 희생사건	1948.9월경	검백지서	1명		
2	직다-7641	보성군 벌교읍 조동석 희생사건	1948.10.29.	벌교읍 소화다리	1명		
3	직다-8364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유제경 희생사건	1948.10월 말	득량지서 옆산	1명		
4	직다-2408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도재덕 가족 3명 희생사건	1948.11.19.	구례읍 봉서리 자택	3명		
5	직다-473	구례군 구례읍 양정지구 파도리	1948.11.20.	구례읍 섬진강 양정지구	1명	8명	
6	직다-606	주민 희생사건					
7	직다-5416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고규석 희생사건	1948.11.21.	목사동면 평리 다리거리 텃밭	1명		
8	직다-911	구례군 간전면 간문천변 희생사건	1948.11.24.	간전면 간문천변	2명	1명	

30)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된 여순사건 피해자 848명 중 777명이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지역 주민이고, 나머지 71명이 신안, 영암, 장성, 나주, 화순 등지 주민이다.

31) 여순사건 발발 후 전남 각 지역 뿐 아니라 전북, 경남 지역에서도 민간인 피해사건이 발생하였다. 제14연대 반군은 전북 남원의 일부 지역을 장악했고, 반군이 진압된 뒤 반군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1948. 11. 19. 경 전북 남원시 운봉면 소송리 뒷산에서 서갑동(徐甲童, 남, 43), 서성규(徐星圭, 남, 19) 등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주민 30여 명이 남원경찰서 소속 경찰과 진압군에게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참고인 서한표 진술조서」(2009. 2. 16.). 또 제14연대 반군은 1948. 10. 25. 경상남도 하동의 일부 지역을 점령했고, 반군이 진압된 뒤 토벌작전 과정에서 1949. 3. 16. 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각리 용각골짜기에서 노우영(盧佑永, 남, 41), 노종규(남, 41) 등이 군인들에게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참고인 노병태 진술조서」(2010. 5. 17.); 자유신문, 1948. 11. 1.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발생시기	발생장소	희생자 수		비고
					진실규명 대상자	인지된 희생자	
9	직다-10133	구례군 간전면 동방천 임창순 희생사건	1948.11월	간전면 동방천	1명		
10	직다-4363	목포대학교 백경조 희생사건	1948.12.5.	목포대학교	1명		
11	직다-6471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정병룡 희생사건	1948.12.10.	대서면 남정리	1명		
12	직다-7788	신안군 하의면 상태서리 박정은 희생사건	1949.1.4.	하의면 상태서리	1명		
13	직다-2723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임태규 희생사건	1949년 봄	구례읍 봉서리 구례농고 옆 개울가	1명		
14	직다-8917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최윤성 희생사건	1949.4.8.	강진군 주둔지	1명		
15	직다-505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마준화 등 3명 희생사건	1949.6.18	석곡면 방송리 소재 밭	3명		
16	직다-8779	구례군 간전면 중대리 임아지 희생사건	1949.7.4.	간전면 중대리 소재 논	1명		
17	직다-6758	곡성군 옥과면 율사리 박판순 희생사건	1949.7.26.	옥과면 율사리 옥과천	1명		
18	직다-9106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윤주한 희생사건	1949.8.23.	해룡면 용전리 자택	1명		
19	직다-8473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김병남 희생사건	1949.9.23.	나주시 남평읍 인근 하천	1명	1명	
20	직다-438	담양군 대덕면 중례골 고광울 희생사건	1949.10.6.	대덕면 옥천리	1명		
21	직다-8020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신삼균 등 4명 희생사건	1949.10.10	죽곡면 원달리 감나무동 개울	1명	3명	
22	직다-9338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김난금 희생사건	1949.10.14.	금산리 대치마을	1명		
23	직다-10584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 이영근 등 7명 희생사건	1949.10.22.	송광면 월산리 추동마을 질등재	1명	6명	
24	직다-8524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용구마을 12명 희생사건	1949.10.24.	수북면 주평리 용구마을 산	4명	8명	
25	직다-992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강대석 가족 9명 희생사건	1949.12.20.	황룡면 관동리 자택	9명		
26	직다-2433	구례군 산동면 원촌국민학교 뒷산 박판옥 희생사건	1949.12.17.	산동면 원촌초등학교 뒷산	1명	1명	
27	직다-595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1950.1.5.	관산읍 농안리	2명		
28	직다-565	손금태 · 김소례 부부 희생사건	1950.6.6.				
29	직다-8844	곡성군 죽곡면 남양리 신봉옥 희생사건	1950.3.9.	죽곡면 남양리 자택	1명		
30	직다-2808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김만수 희생사건	1950.5.16.	옥과면 무창리 강변	1명		
총계	30건				45명	29명	

3. 사건내용

가. 고흥지역 사건³²⁾

여순사건 반군은 1948. 10. 22.~25. 고흥지역을 점령하였고, 그 기간 동안 대서면 대서 국민학교 등에서 인민재판이 열려 경찰, 지역유지 등 우익인사들이 희생되었다. 1948. 10. 25. 제6연대와 제3연대가 고흥을 점령하였다. 그 뒤 1948. 10. 말 고흥군 점암면 연봉리 주민 김우상(金又祥, 남, 19세)이 반군 협조 혐의를 받아 연등마을 도로변에서 여순사건 진압군에 의해 가슴에 총상을 입었고,³³⁾ 남양면 중산리 주민 이종구(李鍾九, 남, 23세)가 반군의 협조자라는 혐의를 받고 남양지서 경찰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그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정신분열증을 앓는 등,³⁴⁾ 제15연대 및 고흥경찰서 관내 각 지서 경찰에 의한 반군토벌과 좌익인사 색출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당하거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³⁵⁾

○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정병룡 희생사건(직다-6471, 1948. 12. 10.)

진실규명대상자 정병룡(丁炳龍, 남, 3)은 1948. 12. 10. 오전 9시경 남정리 월등마을 집 마당에서 별교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희생되었다.³⁶⁾

여순사건 이후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는 팔영산 방향에서 진압군에게 쫓겨 온 반군의 도주경로가 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군인과 경찰의 진압작전이 계속 진행되었다. 당시 남정리에서는 경찰 등이 반군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마을주민들을 불러내어 조사하면서 구타하고 사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³⁷⁾

32) 보성·고흥지역에서 발생한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해서는 2009년 진실규명되었고, 본 결정서는 이때 누락된 4건의 신청사건을 다루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보성·고흥 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2009. 11. 10.

33) 「신청인 김시풍 진술조서」(2010. 2. 19.); 「참고인 마○○·이○○ 진술조서」(2010. 2. 5.). 1950. 10. 25.경 고흥지역에는 6연대와 3연대 병력이 주둔하였는데,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가해자들의 소속 부대를 기억하지 못했다.

34) 「신청인 이천만 진술조서」(2010. 1. 18.); 「참고인 천○○ 진술조서」(2010. 4. 28.); 「참고인 신○○ 진술조서」(2010. 4. 28.). 이종구는 2003년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부친 이종구의 사건에 관하여 부친과 조부모에게 전해 들었다. 이종구는 여순사건 당시 기독교인이었고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반군에게도 협박을 당하여 집 근처 산 속에 피신해 있었다고 한다.

35) 고흥군 풍양면 고옥리 주민 박복삼은 어업에 종사하던 중 1948. 11. 9. 배를 타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풍양지서 경찰에게 끌려가 총살당했다. 「참고인 김○○ 전화면담」(2010. 6. 21.) 「참고인 박춘식 전화면담」(2010. 6. 21.)

36) 「신청인 정하천 진술조서」(2009. 2. 3.);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2. 7.)

특히 정병룡의 집 뒤쪽인 남정리 용암마을 뒷산은 빨치산들이 은신하던 곳으로 빨치산들은 때때로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에게 식량 지원 등을 강요하였고, 경찰 토벌작전 역시 자주 이루어졌다. 사건 당일에도 별교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마을에 나타난 빨치산을 총을 쏘며 추격하던 중 민가를 향해서 무차별 발포하였고, 이때 자신의 집 마당에 나와 있던 3세 아동 정병룡이 경찰의 총에 맞고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사건발생 후 별교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마을이장이었던 신청인 정하천을 찾아와 사과하였지만, 보상 등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들이 정병룡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³⁸⁾

나. 곡성지역 사건

1948. 10. 19. 여순사건 발발 후 제14연대 반군은 여수·순천을 거쳐 일부는 구례, 곡성, 남원 등 북쪽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10. 22. 오전에 곡성을 장악하였다. 반군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먼저 경찰과 우익진영 인사들을 색출한 다음 오후에 지리산으로 입산하였고, 당일 오후 3시경 제3연대가 곡성지역을 탈환하였다.³⁹⁾ 1948. 11.~12. 경 제15연대가 곡성에 주둔하면서 곡성경찰서 토벌대와 함께 반군 토벌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뒤 석곡면에서 반군 협조 혐의자 10여 명이 척살되어 매장되는 등 반군토벌과 좌익인사 색출 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⁴⁰⁾

1)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고규석 희생 사건(직다-5416, 1948. 11. 21.)

진실규명대상자 고규석(高奎錫, 남, 24)은 1948. 11. 21.(음력 10. 21.) 밤에서 11. 22.(음력 10. 22.) 새벽 사이 목사동면 평리 소재 다리거리 텃밭에서 목사동지서 경찰에게 희생되었다.⁴¹⁾

사건 당시 고규석의 부친인 고○○은 좌익 활동을 하다가 피신 중이었고, 고규석은 곡성군 목사동면 수곡리에 거주하는 평범한 농부였다.⁴²⁾ 1948. 11. 21. 저녁 식사 후 고규석

37)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2. 7.)

38) 『신청인 정하천 진술조서』(2009. 2. 3.)

39)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순천시사』, 1997, 769쪽

40)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 5. 13.):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08. 11. 4.). 제15연대 소속 참고인 김병주는 “반군 협조자 사살 뒤에 손가락, 귀, 목을 잘라서 허위로 전과를 보고했다”며 “부락을 수색하여 반군 협조 혐의자를 색출하면 바로 즉결 사살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08.11.3.). 1948. 11. 4. 곡성군 오곡면 오곡지서 맞은편 논에서 경찰에 의해서 사살당한 안이선(安利善, 남, 32, 오곡면 오지리)처럼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이 많았다고 한다. 『참고인 안태윤 진술조서』(2008. 9. 5.)

41) 『신청인 고영옥 진술조서』(2009. 3. 9.):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 8. 19.)

42) 신청인 고영옥의 민원으로 곡성경찰서에서 확인한 보안기록에는 고규석의 부친 고○○이 “6.25 당시 면당

은 여순사건 반란군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자 두세 명의 강압을 받고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 고규석은 밤 10시 30분경에 돌아와 곧바로 목사동지서에 반란군에게 길을 안내해준 사실을 신고하러 갔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도 귀가하지 않았다.

고규석이 귀가하지 않자 목사동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촌 고정석(현재 사망)이 면장과 함께 목사동지서를 찾아갔는데, 당시 지서에는 정규경찰관 2-3명 외에 경찰토벌대 다수가 모여 있었다. 고정석은 평소 알고 있던 경찰(성명미상)로부터 “신고를 마친 고규석이 여기 있다가 날이 새면 귀가해도 좋고, 그냥 지금 귀가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길을 나선 모양인데, 경찰이 의심하여 죽여버린 것 같다. 저기로 가보면 고규석이 누워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⁴³⁾

고정석은 그 뒤 목사동지서 근처인 다리거리 텃밭에서 가마니에 덮인 고규석의 시신을 발견했고, 시신을 가져가도 된다는 경찰의 허락을 받고 마을주민 배○○(현재 사망), 박○○(현재 사망)와 함께 시신을 수습하였다.⁴⁴⁾

2)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마준화 등 3명 희생사건(직다-505, 1949. 6. 18.)

진실규명대상자 마준화(馬俊華, 남, 48), 마임석(馬林錫, 남, 42), 마성숙(馬成淑, 남, 26) 등 3명은 1949. 6. 18.(음력 5. 22.) 산에서 빨치산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치산 연락책이라는 오해를 받아 곡성경찰서 소속 토벌대에게 끌려가 석곡면 방송리 소재 밭에서 희생되었다.⁴⁵⁾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주민인 농부 마준화는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중 빨치산 2명이 물을 떠서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 뒤 마준화는 마을 반장이자 당질(堂姪)인 마임석과 의논한 뒤 빨치산을 목격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누군가의 밀고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찰토벌대는 마임석을 추궁하여 마준화가 산에서 빨치산을 목격했다는 자백을 받아내었고, ‘빨치산 소재지를 찾아내라’며 마준화, 마임석, 마임석의 조카 마성숙 등 3명을 앞세워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밤새도

위원장으로 부역타가 50. 12. 28. 죽곡 봉두산에서 사살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43) 곡성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던 한국전쟁 전의 기록은 모두 소실되어 사건 당시 목사동지서에 근무했던 경찰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곡성경찰서 민원 회신』, 2006.

44) 신청인은 사건 당시 생후 5개월이었고, 부친 고규석의 희생사건에 관해서는 시신을 수습했던 당숙 고정석과 삼촌 고춘석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 『신청인 고영옥 진술조서』(2009. 3. 9.)

45) 『신청인 마임석 진술조서』(2007. 10. 20.); 『참고인 마○○ 진술조서』(2010. 1. 11.). 여순사건 이후 반란군 토벌을 위해 각 경찰서에 경찰관으로 편성된 경찰 특공부대가 있었다. 『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09. 4. 2.)

록 돌아다녀도 찾아내지 못하자 경찰토벌대는 마준화 등 3명을 석곡면 방송리 소재 밭에서 사살하였다.⁴⁶⁾

사건이 발생한 뒤 사건현장 인근 주민들이 가족들에게 마준화 등 3명의 희생사실을 알려주었고, 마준화의 처 등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자택 옆 문중 소유 산에 안장하였다.⁴⁷⁾

3) 곡성군 옥과면 율사리 박판순 희생사건(직다-6758, 1949. 7. 26.)

진실규명대상자 박판순(朴判順, 남, 56)은 1949. 7. 26.(음력 7. 1.) 해질 무렵 평소에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율사리 금단마을의 금단보 관리를 마치고 옥과천을 건너던 중 옥과지서 소속 경찰토벌대에게 희생되었다.⁴⁸⁾

곡성군 옥과면 율사리 주민인 박판순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인 금단보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⁴⁹⁾ 1949. 7. 26. 빨치산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토벌대는 평소와 같이 금단보를 점검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옥과천을 건너던 박판순을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 사살하였다.

사건현장에서 시신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총성이 들려 옥과천으로 가보니 가슴에 총을 맞고 즉사한 박판순의 시신 주위에 경찰토벌대원과 마을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마을주민들이 왜 무고한 주민을 사살하느냐고 따지니 경찰토벌대원이 “반란군인 줄 알고 쏘았다”고 말한 뒤 도망갔다고 한다.⁵⁰⁾

4)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신삼균 등 4명 희생사건(직다-8020, 1949. 10. 10.)

진실규명대상자 신삼균(申三均, 남, 21)은 1949. 10. 10.(음력 8. 19.) 원달리 구 마을 회관 앞 개울(속칭 ‘감나무동 개울’)에서 군인들의 칼에 찔려 희생되었다. 이때 신삼균 외에 신흥균, 정명옥, 김기태 등 원달리마을 주민 3명이 함께 희생되었다.⁵¹⁾

46) 『신청인 마인석 진술조서』(2007. 10. 20.)

47) 『신청인 마인석 진술조서』(2007. 10. 20.)

48) 『신청인 김원순 진술조서』(2007. 10. 23.);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7. 10. 23.)

49) 옥과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단보 관리자 연명부에는 박판순이 1949년 당시 금단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옥과면 금단보 관리자 연명부 제출협조』, 진실화해위원회, 2007. 10. 31; 『옥과면 금단보 관리자 연명부 제출』, 옥과면사무소, 2007. 11. 8

50) 참고인 박○○은 사건발생 후 현장에서 시신과 가해자인 경찰토벌대원을 목격하였지만 경찰토벌대원의 인적사항은 알지 못했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7. 10. 23.).

51) 『신청인 신헌보 진술조서』(2010. 1. 11.); 『참고인 정순학 진술조서』(2010. 1. 11.);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 1. 11.). 군인들은 어디 소속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사건현장을 목격한 참고인 정순학, 박○○의 진술에 따르면 누런 군복을 입고, 흰 띠를 두른 철모를 쓰고 있던 자들이 신삼균 등을 찔러 죽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빨치산이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에 와서 강압적으로 양식을 달라고 하자 마을주민들은 된장, 고추장 같은 식량을 내어주었다. 신삼균을 비롯한 희생자의 아내 4명은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곡성경찰서에 끌려갔고, 그 뒤 빨치산이 곡성경찰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군인과 경찰은 그에 대한 보복을 시작하였다.⁵²⁾

군인들은 원달리에 도착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을주민들을 마을 회관 앞으로 소집하였다. 마을주민들이 마을 회관 앞으로 모이자 군인들은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여성들의 남편인 신삼균 등 4명을 가려내어 개울가로 끌어냈다. 그리고 군인들이 총에 칼을 꽂아 4명을 찔렀으며, 그 다음 희생자의 형제들을 불러내어 다시 찔러 죽이게 하였다.⁵³⁾ 군인들이 가고난 뒤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다.

5) 곡성군 죽곡면 남양리 신봉옥 희생사건(직다-8844, 1950. 3. 9.)

진실규명대상자 신봉옥(申奉玉, 남, 48)은 1949. 7.경 반란군의 협박에 못 이겨 밥을 해주었다고 곡성 죽곡지서에 신고하러 갔다가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950. 3. 9.(음력 1. 21.), 자택에서 사망하였다.⁵⁴⁾

1949. 7.경 빨치산들이 곡성군 죽곡면 남양리로 내려와 밥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마을이장 집에서 밥을 해주었다. 빨치산이 돌아간 뒤 마을주민들은 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신봉옥이 마을주민 대표로 죽곡지서에 가서 빨치산이 마을에 다녀간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죽곡지서 경찰들은 오히려 신봉옥을 지서 유치장에 5일 동안 감금하였다.⁵⁵⁾

경찰들은 지서에 감금되어 있는 신봉옥을 몽둥이로 구타하고, 거꾸로 매단 채 고춧가루 탄 물을 코에 붓는 등의 고문을 하였다.⁵⁶⁾ 이렇게 고문을 받고 돌아온 신봉옥은 밤마다 피를 토하는 등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이듬해인 1950. 3. 9. 사망하였다.⁵⁷⁾

52)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 1. 11.)

53)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 1. 11.); 『참고인 정순학 진술조서』(2010. 1. 11.)

54) 『신청인 신현호 진술조서』(2009. 8. 17.); 『참고인 신석균 진술조서』(2010. 1. 11.)

55) 『신청인 신현호 진술조서』(2009. 8. 17.)

56) 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경찰 측 참고인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57) 『참고인 신석균 진술조서』(2010. 1. 11.). 참고인 신석균은 신봉옥의 차남으로, 신봉옥이 죽곡지서에 신고하러 가는 모습, 모친이 지서로 밥을 해가는 모습, 신봉옥이 고문을 받고 돌아와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사망하는 모습 등을 모두 목격하였다.

6)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김만수 희생사건(직다-2808, 1950. 5. 16.)

진실규명대상자 김만수(金萬洙, 남, 36, 이명 김천수)는 1950. 5. 16.(음력 3. 30.) 옥과지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토벌대에게 끌려가 옥과면 무창리 강변에서 희생되었다. 이때 신원미상의 소룡리 주민 1명도 함께 희생되었다.⁵⁸⁾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주민 김만수는 평범한 농부였다. 그러나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좌익 박○○이 자주 김만수의 집 대문에 뼈라 등을 붙이곤 했고, 김만수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옥과지서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평소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풀려났던 김만수는 1950. 5. 15. 다시 옥과지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만수 등 옥과면 주민 15명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옥과지서에서 대기 중일 때 경찰토벌대⁵⁹⁾가 도착하여 “어 이것들 뭐야, 전부 빨갱이 아니여?”하면서 지서장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5명을 옥과면 무창리 강변으로 끌고 갔다. 경찰토벌대가 김만수를 첫 번째로 사살하고 소룡리 주민(신원 미상)을 두 번째로 사살한 뒤 세 번째 사살 준비를 할 때 옥과지서장 정갑준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죄 없는 사람들이라며 사살을 제지하였다. 결국 김만수 등 2명은 사살당하고, 나머지 13명은 생환하였다.⁶⁰⁾

사건발생 후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다. 그 뒤 옥과지서장 정갑준은 김만수의 처와 자녀 등 유족에게 사과하였고, 한 달 가량 옥과지서에서 유족들을 보호하였다.⁶¹⁾

다. 구례지역 사건

구례는 지리적으로 반군이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곡성·광양·순천·보성·남원 등지와 연결되는 길목이다.⁶²⁾ 1948. 10. 23. 반군이 구례에 들어와 간전면과 토지면 문수리를 거쳐 지리산으로 들어갔고, 입산한 반군과 좌익 세력은 지리산 일대에 유격 근

58) 『신청인 김용철 진술조서』(2007. 10. 22.); 『참고인 오○○ 진술조서』(2010. 1. 22.); 『참고인 신○○ 진술조서』(2010. 4. 8.)

59) 1949년도에 곡성지역에서 경찰토벌대로 활동했던 참고인 김갑기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토벌대는 각 경찰서별로 구성되었고, 경찰서 보안계장이 토벌대장 지휘를 맡고 있었다고 한다. 또 경찰토벌대는 경찰서장 지시에 의해서 작전이 이루어지고, 인원은 보통 70-80명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한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4. 8.)

60) 『신청인 김용철 진술조서』(2007. 10. 22.); 『참고인 오○○ 진술조서』(2010. 1. 22.); 『참고인 신○○ 진술조서』(2010. 4. 8.).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이 때 생환한 이들로부터 사건에 관해 전해 들었지만, 김만수와 함께 사살당한 소룡리 주민과 생환한 13명의 인적사항은 기억하지 못했다.

61) 『신청인 김용철 진술조서』(2007. 10. 22.)

62) 노영기, 『여순사건과 구례 - 여순사건 직후 군대의 주둔과 진압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제68호, 2005, 42쪽.

거지를 구축하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덕유산과 백운산에 분산하여 은거하였다.⁶³⁾

1948. 10월 말부터 제2여단 소속 제12연대와 제5여단 소속 제3연대가 각각 구례읍과 산동면에 주둔하며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반군 토벌작전을 진행하였고, 그 동안 반군의 습격도 계속되었다. 1948. 11. 14. 제12연대장 백인기가 반군의 습격으로 실종되었다가 다음날인 11. 15.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진압군 측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진압군은 인근 부락민이 반군에게 협조하고 있다는 의심 아래 강경한 진압 작전을 펼치면서 민간인들을 체포하고 사살하였다.

진압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구례경찰서는 직접 또는 각 지서 단위로 파견된 사찰계 형사를 통해 마을을 사찰하여 반란군 협조 혐의자를 연행·구금·조사하고 사살하였다.⁶⁴⁾

1)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도재덕 가족 3명 희생사건(직다-2408, 1948. 11. 19.)

진실규명대상자 도재덕(都在德, 남, 40), 도광열(都光烈, 남, 10), 도광옥(都光玉, 남, 1) 등 가족 3명이 1948. 11. 19.(음력 10. 19.) 봉서리 자택에서 제12연대 군인에게 희생되었다.⁶⁵⁾

1948. 11. 19. 05시경부터 반군이 구례경찰서, 구례군청, 봉성산 등을 습격함으로 인해 교전이 벌어졌다. 반군이 봉서리 방향으로 후퇴하자 봉서리 일대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당시 봉서리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자택으로 피신하였는데, 지푸라기로 집 벽을 둘러서 총알을 막거나 아궁이에 들어가 총알을 피하기도 하였다.⁶⁶⁾ 평범한 농부였던 도재덕의 가족도 봉서리마을 자택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피신 중이었다.

반군이 밀려 산으로 후퇴하자 제12연대 군인들은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군인들이 산 밑에 위치한 도재덕의 집에 쌓여 있는 나무더미를 보고 반군이 은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인이 방에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무차별 발사하였다.⁶⁷⁾ 이로 인해 도재덕과 그 아들인 도광열, 도광옥 등 가족 3명이 희생당하였고, 도재덕의 아들 도광석은 팔에 총상을 입었다.⁶⁸⁾

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76쪽.

64) 구례지역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에 관해서는 2008년 진실규명 결정되었고, 본 결정서는 당시 누락된 9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65) 「신청인 도광석 진술조서」(2007. 4. 9.);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1. 1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9.); 진실화해위원회·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7, 614쪽. 도재덕 등 가족 4명이 방에 있다가 신청인 도광석만 총상을 입고 살아남았고, 3명이 사살되었다.

6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9.); 진실화해위원회, 「구례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8, 75쪽

67)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1. 19.). 참고인 정○○은 사건발생 후 마을 어른들로부터 사건에 대해서 전해 들었다.

2) 구례군 구례읍 양정지구 파도리 주민 희생사건(직다-473, 직다-606, 1948. 11. 20.)

진실규명대상자 표귀중(表貴鍾, 남, 32)은 1948. 11. 20.(음력 10. 20.) 제12연대 군인에 의해 구례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진압군의 조사방식에 항의하다 끌려가 구례읍 섬진강 양정지구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파도리 주민인 장응벽, 장일수, 현세종, 고판수, 곽상수, 이중환, 이중환의 부인 2명 등 8명도 함께 구례경찰서로 연행된 뒤 구례읍 양정지구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⁹⁾

구례읍에는 제12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1948. 11월부터 제12연대와 경찰은 토벌 작전 과정에서 구례읍 주민을 비롯하여 구례 각 면의 주민들 가운데 좌익과 입산자 가족 및 친척, 또는 이들과 무관한 이들까지 구례경찰서 등지로 연행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를 구례읍 봉성산, 섬진강 양정지구(문척교 주변), 서시천변(서시교 아래)에서 사살하고 매장하였다.⁷⁰⁾

표귀중이 거주하던 토지면은 반군이 구례에서 지리산으로 입산하는 길목이었고, 또한 좌익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이었다.⁷¹⁾ 1948. 11. 19(음력 10. 19), 간전면에 있던 제12연대 군인과 토지면 파도리 도산마을에 있던 반군은 동방천을 사이에 두고 밤새도록 총격전을 벌였다. 다음날인 1948. 11. 20. 새벽 무렵 전투를 마친 군인은 파도리 도산마을 청년들에게 군인들 시신을 수습하게 하였고, 1차로 그 청년들을 구례경찰서로 끌고 갔다. 그 뒤 노인과 아동을 제외한 도산마을 주민을 모두 트럭에 태워 구례경찰서로 끌고 갔다.⁷²⁾

군인들은 구례경찰서 마당에 도산마을 주민들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앉힌 다음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끌어내어 그에게 반군에게 협조한 사람을 지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앉아 있는 마을주민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지목하였고,⁷³⁾ 표귀중이

68) 『신청인 도광석 진술조서』(2007. 4. 9.)

69) 『신청인 표안설 진술조서』(2010. 1. 19.);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 1. 13.);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13.). 신청인 표안설은 부친의 희생사실에 대해서 모친 등 주위 어른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 참고인 박○○는 도산마을 주민들이 구례경찰서로 끌려갈 때 아기를 업은 채 끌려가서 표귀중 등 도산마을 주민들이 희생되기 전 상황을 목격하였다.

70) 진실화해위원회, 『구례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8, 75-79쪽.

71) 진실화해위원회, 『구례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8, 73 쪽

72) 참고인 이○○은 도산마을 주민들이 끌려간 날이 마침 집안의 시제날이었기 때문에 연행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13.)

73) 이런 식의 군경의 반군 협조자 색출 방식은 ‘손가락총’이라 불렀다. “지역 공동체 성원 간에 자행된 ‘손가락총’은 인간성 말살과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위 심사과정에서 ‘손가락총’이라는 말이 유행하였으며, 중상모략이 난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무고한 희생자가 더욱 많아졌고, 그 희생의 주체가 누구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았음은 물론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논문집』, 2006, 208쪽.

“이○○는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마을 사람들 가운데 누가 반란군에게 밥을 해준 줄 알겠느냐?”며 따졌다. 그러자 군인들은 “야, 이 새끼야 너 나와!”라고 소리치며 표귀종을 끌어내어 구타한 뒤 어디론가 끌고 갔다. 이 때 이○○에게 지목당한 장응벽, 장일수, 현세중, 고판수, 박상수, 이중환, 이중환 부인 2명 등 파도리 주민 8명도 함께 끌려갔다.⁷⁴⁾

그로부터 3일 후, 군인들이 도산마을 20여 가구의 집을 모두 불태웠고, 마을주민들을 다른 마을로 이주시켰다. 구례경찰서에서 끌려간 표귀종 등 파도리 주민 9명은 그 뒤 돌아오지 않았고, 이들이 구례읍 섬진강 양정지구에서 사살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9명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⁷⁵⁾

3) 구례군 간전면 간문천변 희생사건(직다-911, 1948. 11. 24.)

진실규명대상자 김길동(金吉東, 남, 22), 김길수(金吉洙, 남, 10) 형제는 1948. 11. 24.(음력 10. 24.) 제12연대 군인들에 의해 간문국민학교로 끌려간 뒤 간문국민학교 건너편인 간문천변에서 희생되었다.⁷⁶⁾

간전면에 주둔한 제12연대는 반군을 고립시키기 위해 간전면 마을들을 소개시켰고, 11. 20.에서 11. 23.까지 간전면 주민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을 간문국민학교로 끌고 갔고, 나머지 주민들을 면소재지로 이주시켰다. 당시 간문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제12연대는 연행한 간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로당 가입 및 반군 협조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많은 주민들을 간문국민학교 건너편 간문천변에서 집단 사살하였다. 또 당시 동방천 다리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 가운데 삼산리 거주 ‘배씨’가 지목한 이들도 군인들에게 끌려가 간문국민학교로 연행된 뒤 간문천변에서 사살되었다.⁷⁷⁾

간전면 금산리 용지동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던 진실규명대상자 김길동, 김길수도 1948. 11. 23. 금산리에 들어온 제12연대 군인들에 의해 간문국민학교로 끌려갔고, 다음날인 11. 24. 간문천변에서 사살되었다. 김길동의 이름은 『구례군지』의 간전면 천변 사건 희생자

74)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 1. 13.);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13.). 이○○은 사건 당시 14세였기 때문에 구례경찰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마을주민들과 함께 끌려갔다가 돌아온 형 이○○로부터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다.

75) 『신청인 표안설 진술조서』(2010. 1. 19.);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 1. 13.); 『참고인 이○○ 진술조서』

76) 『신청인 김순심 진술조서』(2010. 2. 17.); 『참고인 한○○ 진술조서』(2010. 2. 17.); 『참고인 윤○○ 진술조서』(2010. 2. 17.).

77) 1948. 11. 24. 구례군 간전면에서 발생한 ‘간문천변 희생사건’에 대해서는 2008. 7. 17. 진실규명 결정되었다. 직다-911 사건은 처음에 적대세력사건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구례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에서 누락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구례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8, 69~71쪽

명단에 수록되어 있다.⁷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의 ‘구례군 피해자 명단’에는 김길동, 김길수가 군인에게 사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⁷⁹⁾

또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주민 최대홍(崔大洪, 남, 22)도 1948. 11. 23, 동방천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사역에 참여하였다가 ‘배 씨’에게 지목당해 간문천변으로 끌려가 사살되었다.⁸⁰⁾

4) 구례군 간전면 동방천 임창순 희생사건(직다-10133, 1948. 11월)

진실규명대상자 임창순(林昌淳, 남, 41)은 1948. 11월경, 반군 연락책이라는 이유로 제3연대 군인들에게 끌려 간 뒤 구례군 간전면 동방천 강변에서 군인에게 희생되었다.⁸¹⁾

여순사건 발발 후 산동면에서는 국군 제3연대가 원촌국민학교에 주둔하며 민간인들을 연행, 구금하여 사살하였다. 제3연대는 1948. 11월부터는 산동면 주민들을 마을 소재 공터, 중동국민학교 등에 1차로 집합시킨 뒤 젊은 사람들을 골라 원촌국민학교와 누에고치 판매소로 연행하였다. 특히 제3연대는 좌사리를 좌익의 근거지로 판단하였고, 정보망을 통해 좌익혐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였다.⁸²⁾

제3연대가 좌사리 주민들을 중동국민학교로 소집하여 조사할 무렵인 1948. 11월경, 산동면 좌사리마을 이장이었던 임창순은 군인들이 주민들을 감금한 뒤 반군에 대한 식량 제공 여부 등을 물어 반군 협조혐의자를 선별하던 원촌리의 누에고치 판매소로 끌려갔다.⁸³⁾

임창순이 그 뒤 간전면 동방천에서 희생당한 사실을 마을주민들에게 전해준 사람은 좌사리 주민 박○○이다. 박○○는 간전면 동방천 부근을 지날 때 군인들과 주민들이 두 사람을 돌과 몽둥이로 구타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두 사람이 사망하자 사람들이 시신 한구를 수습해갔고, 박○○가 다른 시신은 산동면 주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임창순임을 확인한 뒤 가족들에게 알려 시신을 수습하게 하였다.⁸⁴⁾

78) 구례군, 『구례군지(상)』, 2005, 500쪽.

79) 진실화해위원회·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7, 232쪽

80) 「참고인 최기홍 진술조서」(2010. 2. 26.); 「참고인 한○○ 진술조서」(2010. 2. 2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2. 24.). 진실화해위원회, 『구례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8, 70쪽.

81) 「신청인 임정남 진술조서」(2007. 8. 28.); 「참고인 임상진 진술조서」(2010. 1. 1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2. 23)

82) 「참고인 임상진 진술조서」(2010. 1. 1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2. 23.); 진실화해위원회, 『구례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8, 62쪽.

83)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2. 23).

84) 「참고인 임상진 진술조서」(2010. 1. 14.). 참고인 임상진은 좌사리 상관마을 이웃 주민이었던 박○○로부터 임창순의 희생사실에 대해서 들었다. 박○○는 경남 하동 화개에서 한문을 배우기 위해서 산동면에서 간

5)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임태규 희생사건(직다-2723, 1949년 봄)

진실규명대상자 임태규(林泰圭, 남, 32)는 1949년 봄 빨치산 협조자라는 모함을 받아 제12연대 군인들에 의해 구례읍 봉서리 구례농고 옆 개울가에서 희생되었다.⁸⁵⁾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에서 거주하던 임태규는 여순사건 당시 구례군 대한청년단장을 지냈고, 제12연대 진압군이 구례에 들어온 이후 진압군을 돕기도 하였다. 임태규는 산판업에 종사하였는데, 황전리 이장 이기연이 산판업에 뛰어들면서 임태규의 산판 허가권을 빼앗기 위해 임태규가 빨치산에 동조하였다고 군인들에게 무고하였다. 그 뒤 임태규는 제12연대 군인에 의해 끌려가 구례읍 구례농고 옆 개울가에서 사살되었다.⁸⁶⁾

사건현장에는 임태규의 시신 1구만 있었고, 임태규의 가족들과 집안 일꾼, 임태규의 조카 김진옥이 시신을 수습하였다.⁸⁷⁾

6) 구례군 간전면 중대리 임아지 희생사건(직다-8779, 1949. 7. 4.)

진실규명대상자 임아지(林阿只, 여, 37)는 1949. 7. 4.(음력 6. 9.) 오후 9시경, 간전면 중대리 소재 논에 물을 대던 중 제15연대 군인들에게 희생되었다.⁸⁸⁾

임아지는 간전면 중대리 주민으로 사건 당일 밤 9시경 마을 위쪽에 있는 논에 물을 대고 있었다. 이때 마을에서 빨치산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 중인 제15연대 군인들이 민간인인지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고 임아지를 향해 무차별 발사하였다. 총상을 입은 임아지를 발견한 군인들은 같은 마을 주민 윤○○에게 지계를 들고 와서 임아지를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만 임아지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마을 아래로 내려가던 중 사망하였고, 임아지의 시신은 즉시 집으로 옮겨졌다.⁸⁹⁾

사건 당시 제15연대 1대대 3중대가 중대리 건너편의 간문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에게 밤에 농사일을 하지 말라는 지시 등은 하지 않았고, 그 뒤 마을이 소개당한 뒤부터는 밤에 집 밖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⁹⁰⁾

전면을 지나 하동까지 자주 왕래하였는데, 사건 당시에도 하동을 다녀오다가 간전면을 지날 때 임창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85) 「신청인 임창규 진술조서」(2007. 12. 11.); 「참고인 김진옥 진술조서」(2007. 12. 11.)

86) 「신청인 임창규 진술조서」(2007. 12. 11.); 「참고인 김진옥 진술조서」(2007. 12. 11.)

87) 「참고인 김진옥 진술조서」(2007. 12. 11.)

88) 「신청인 윤우근 진술조서」(2007. 8. 30.); 「참고인 윤○○ 진술조서」(2010. 1. 18.);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18.)

89) 「참고인 윤○○ 진술조서」(2010. 1. 18.). 참고인 윤○○은 임아지의 옆집에 살던 같은 마을 주민으로, 사건 당시 부친 윤○○이 임아지를 지계에 신고 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90) 「신청인 윤우근 진술조서」(2007. 8. 30.);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18.)

7) 구례군 산동면 원촌국민학교 뒷산 박판옥 희생사건(직다-2433, 1949. 12. 17.)

진실규명대상자 박판옥(朴判玉, 남, 29)은 1949. 12. 17.(음력 10. 28.) 빨치산에게 밥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제3연대 군인들에 의해서 산동면 원촌국민학교 뒷산에서 희생되었다. 이때 산동면 좌사리 주민 한기범도 함께 희생되었다.⁹¹⁾

좌사리 당동마을 이장이었던 박판옥은 1949. 12. 16. 군인들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 마을 청년 3-4명과 함께 산동면 면소재지인 원촌리로 갔다. 당시 국군 제3연대가 원촌리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동면 주민들은 당번을 정하여 군인들에게 밥을 해주었다. 당시 좌사리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낮에는 군인에게 밥을 해주고 밤에는 빨치산들에게 밥을 해 주었는데, 박판옥은 빨치산에게 밥을 해준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날인 12. 17. 군인들에게 사살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 가족들이 원촌국민학교 뒷산에서 생전에 입고 있던 옷으로 식별하여 박판옥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시신을 수습한 박판옥의 처 임공순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에는 박판옥과 한기범을 포함하여 5-6구의 시신이 있었지만 두 사람 외에는 다른 마을 주민이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⁹²⁾

국군 제3연대는 1948. 10. 말부터 산동면 원촌국민학교에 주둔하면서 반군 토벌을 진행하였고, 구례경찰서 경찰들과 함께 1948. 11. 부터 산동면 주민들을 원촌리 원촌국민학교 및 누에고치 판매소와 관산리 중동국민학교로 연행하여 고문하고 조사한 뒤, 이 중 다수의 주민들을 사살하였다. 주요 사살 장소는 시상리 꽃쟁이재, 이평리 윤씨 선산 횃골, 원달리 달전마을 등이다. 산동면 내산리 주민 구정길(具正吉, 남, 20)은 제3연대 군인들에 의해 산동면 원촌리 누에고치 창고로 연행되었다가 1948. 12. 22.경 시상리 꽃쟁이에서 사살되었다.⁹³⁾ 또 1948. 11. 17. 오후 6시경, 제3연대 군인들이 달전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을 집결시킨 뒤 주민들을 상대로 반군에게 밥을 해주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형편이 어려워 밥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5명 등 17명을 사살하였다.⁹⁴⁾ 이때 양윤성(梁允

91) 『신청인 박기성 진술조서』(2008. 1. 28.); 『참고인 임공순 진술조서』(2010. 2. 23.); 『참고인 김상우 진술조서』(2010. 2. 23.); 『참고인 양○○ 진술조서』(2010. 2. 23.)

92) 『참고인 임공순 진술조서』(2010. 2. 23.)

93) 『참고인 구자용 진술조서』(2010. 1. 8.); 『참고인 구정문 진술조서』(2010. 2. 23.); 『참고인 한봉금 진술조서』(2010. 2. 24.)

94) 본 사건은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반군에게 밥을 해준 사람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실제 밥을 해준 사람들은 살려주고, 밥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 사람들은 집단으로 학살하는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 보고서』, 2007, 673쪽.

成, 남, 16)은 오른팔에 총상을 입었다.⁹⁵⁾

라. 담양지역 사건

여순사건 발발 후 국군 제4연대(이후 20연대로 재편), 제15연대가 담양지역에 들어와 반군 진압 및 토벌작전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제4연대, 제15연대 소속 군인들이 반군에게 식량 등을 제공한 마을주민들을 사살하기도 하고,⁹⁶⁾ 담양경찰서 및 산하 지서 소속 경찰 등이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마을주민들을 지서 등지로 끌고 가서 고문, 구타한 뒤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 담양군 대덕면 중례골 고광율 희생사건(직다-438, 1949. 10. 6.)

진실규명대상자 고광율(高光律, 남, 31세)은 1949. 10. 6.(음력 8. 15.) 경 담양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끌려가 대덕면 문학리 옥천마을 앞산 중례골에서 희생되었다. 이때 고광율 외 담양지역 주민 20여 명이 함께 희생되었다.⁹⁷⁾

대덕면 고서면 교산리 주민 고광율은 자택에서 야학을 운영하였으며, 좌익 활동에 연관이 되어 피신생활을 하기도 하였다.⁹⁸⁾ 고광율은 1949. 10. 6. 자택에서 담양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끌려갔다. 가족들은 고광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소문 끝에 대덕면 문학리 옥천마을 앞산의 중례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중례골에서 구덩이에 내던져진 채 흙으로 덮여있는 20여 구의 시신들을 발견하였다. 이미 시신의 부패 상태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고광율의 처와 동생이 고광율이 끌려갈 때 입었던 베옷과 평소 소지하던 담배쌈지 등으로 확인하여 시신을 수습하였다.⁹⁹⁾

95) 『신청인 양병수 진술조서』(2007.10.17); 『참고인 강○○ 진술조서』(2010. 2. 11.); 『참고인 강○○ 진술조서』(2010. 2. 11.). 신청인 양병수와 참고인 강○○, 강○○은 달전마을 정자나무 아래로 소집되어서 사살장면 등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다. 사건 당시 양윤성은 16세였지만, 돌막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키가 커보여서 끌려 나갔다고 한다.

96)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160쪽.

97) 『신청인 고재언 진술조서』(2009. 1. 20.); 『참고인 최○○ 진술조서』(2010. 1. 17.); 『참고인 최○○ 진술조서』(2010. 4. 28.); 『참고인 고영자 전화면담』(2009. 4. 27.); 『참고인 고광필 전화면담』(2009. 5. 4.). 고광율의 동생 고광필은 고광율의 처와 함께 중례골에서 고광율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옆집에 살던 참고인 최○○은 고광율이 담양경찰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던 현장을 목격하였다. 중례골 인근 마을인 문학리 주민인 참고인 최○○은 1949년 추석 경 군인과 경찰이 담양지역 주민들을 트럭에 싣고 중례골로 가는 모습을 목격한 뒤 총성을 들었으며, 군인과 경찰이 떠난 뒤 사건현장에서 구덩이에 매장된 시신들을 목격하였다. 시신이 수습된 고광율 외 다른 시신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98) 『신청인 고재언 진술조서』(2009. 1. 20.). 신청인은 부친 고광율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949. 12. 13.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고광율은 보도연맹 관련 희생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호남신문, 1949. 12. 25.

2)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용구마을 12명 희생사건(직다-8524, 1949. 10. 24.)

진실규명대상자 김점술(金点述, 남, 14), 김종철(金宗喆, 남, 28), 박균상(朴均祥, 남, 16), 강용구(姜龍求, 남, 18)는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대전면 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담양경찰서로 이송되었고, 1949. 10. 24.(음력 9. 3.) 수북면 주평리 용구마을 뒷산에서 희생되었다. 이때 대전면 서옥리마을 주민 김달마, 김기팔, 김우명, 김용덕, 문○○(문도연 차남), 박○○(박균수 동생), 김○○, 박○○(신선이 사위, 이름미상자) 등 8명도 함께 희생되었다.¹⁰⁰⁾

희생자 12명은 불태산과 인접한 대전면 서옥리 주민들로 모두 평범한 농민이었다. 불태산에 은신하던 빨치산들이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가져갔고, 경찰들은 빨치산에게 협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빨치산과 내통하는 사람들을 색출한다며 주민들을 자주 연행하여 구타, 고문하였다. 사건발생 당시 빨치산에게 끌려 불태산으로 올라갔던 신○○이 도망쳐 나와 대전지서에 자수하면서 서옥리 주민 15명을 빨치산 협조자로 고발하였다.

대전지서 경찰들은 신○○이 언급한 서옥리 주민 15명을 지서로 끌고 가 감금한 채 고춧가루 물을 붓고 마구 때리면서 조사하였다. 삼일 후, 고문과 구타에도 끝까지 빨치산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부정한 3명은 풀려났고,¹⁰¹⁾ 고문에 못 이겨 거짓으로 자백한 12명은 지서장 이재훈의 지휘 하에 담양경찰서로 이송하였다.¹⁰²⁾

1949. 10. 24.(음력 9. 3.) 김점술 등 12명은 수북면 주평리 용구마을 뒷산에서 나무에 묶인 채 칼에 찔려 희생당했으며, 부친과 처 등 가족과 마을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하였다.¹⁰³⁾

99) 『참고인 고영자 전화면담』(2009. 4. 27.); 『참고인 고광필 전화면담』(2009. 5. 4.). 시신을 수습한 고광율의 동생 고광필과 시신을 수습한 모친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고광율의 딸 고영자는 병으로 인해 면담이 불가능하였다.

100) 『신청인 김영술 진술조서』(2009. 9. 23.); 『신청인 이현숙 진술조서』(2010. 1. 15.); 『신청인 박성기 진술조서』(2010. 1. 16.); 『신청인 강상구 진술조서』(2010. 1. 15.); 『참고인 남○○ 진술조서』(2010. 4. 2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4. 29.). 본 사건은 대전면 일대에서 같은 날 12명의 제사가 있는, '서옥리 주민 12명 희생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희생자 김종철의 부인 이현숙은 사건발생 후 용구마을 뒷산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101) 『참고인 남○○ 진술조서』(2010. 4. 29.). 참고인 남○○의 부친 남○○과 김○○, 문씨 등 3명은 풀려났지만 대전지서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상해를 입어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남○○은 부친 남○○으로부터 대전지서에 수감된 뒤의 상황을 전해들었다.

102) 『신청인 이현숙 진술조서』(2010. 1. 15.). 이현숙은 남편 김종철이 대전지서에 감금되고 이를 뒤에 밥을 가져갔을 때 대전지서 경찰들이 서옥리 주민 12명을 밧줄에 엮어 담양경찰서로 이송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현숙은 그 뒤 담양경찰서로 찾아가 죄없는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항의하였다.

103) 『신청인 이현숙 진술조서』(2010. 1. 15.).

마. 목포지역 사건

○ 목포대학교 백경조 희생사건(직다-4363, 1948. 12. 5.)

진실규명대상자 백경조(白敬祚, 남, 32)는 1948. 12. 5.(음력 11. 5.) 좌익 혐의를 받고 목포경찰서 사찰계 형사들에게 연행된 뒤 목포대학교 운동장으로 끌려가 희생되었다.¹⁰⁴⁾

백경조는 사건발생 당시 순천 철도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¹⁰⁵⁾ 백경조는 1948. 12. 3. 목포에 있는 동생 백창현(白昌鉉, 남, 26, 사건 당시 목포역에서 근무)의 집을 방문했고, 다음날인 12. 4. 백창현과 함께 목포경찰서로 연행되어 갔다. 목포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뒤 백창현은 풀려나왔지만¹⁰⁶⁾ 백경조는 12. 5. 목포대학교 운동장에서 신원미상의 5명과 함께 사살되었다.¹⁰⁷⁾ 사건발생 후 백창현과 아들 백홍영이 시신을 수습하였다.¹⁰⁸⁾

순천경찰서가 작성한 『사실조사서』¹⁰⁹⁾에도 백경조가 사살되었다고 등재되어 있다.

바. 보성지역 사건

여순사건 발발 후 보성지역에서는 전남경찰국 토벌대, 보성경찰서 및 관내지서 경찰, 20연대 소속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다.

1948. 10. 22. 반군이 벌교 읍내를 장악하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0. 23.에는 반군과 지방좌익에 의해 인민재판이 열려 피신하지 못한 경찰, 우익인사 등이 희생되었다. 그 후 반군은 검백면, 복내면, 울어면 일대 산악지대로 들어가 유격투쟁을 전개했으며, 11월 초에는 보성 읍내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북경찰청에서는 지원 부대를 반군의 기습이 잦았던 복내면, 검백면, 울어면, 회천면, 조성면 경찰지서에 배치하였다. 진압작전이 끝난 뒤에도 벌교 및 인근지역에는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어 토벌은 12월까지 계속되었다. 1948. 11.경 누나가 거주하고 있는 울어면 이동리 배골마을에 반군이 나타났다는 소

104) 「신청인 백홍영 진술조서」(2008. 3. 4.). 백경조는 원래 순천지역 주민으로 목포 방문 중에 희생당했기 때문에 순천이나 목포에서 본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참고인을 찾을 수 없었다.

105) 철도청에 소장되어 있는 직원명부에서 진실규명대상자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다.

106) 백창현은 고문을 심하게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왼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몇 년 전 사망했다. 「신청인 백홍영 진술조서」(2008. 3. 4.)

107) 신청인 백홍영은 부친 백경조와 함께 끌려갔다 풀려난 숙부 백창현으로부터 부친이 '철도보도연맹명부(좌익명부로 판단됨)'에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들었다. 백홍영은 여순사건 진압 당시 부친과 함께 철도국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여러 명 사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백홍영 진술조서」(2008. 3. 4.)

108) 「신청인 백홍영 진술조서」(2008. 3. 4.)

109) 순천경찰서, 『사실조사서31-31』, 1980, 79쪽

문을 듣고 가족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배골마을에 갔다가 얼굴이 검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반군으로 오해를 받아 15연대 소속 군인에게 왼쪽 옆구리에 총상을 입은 이복동(李福童, 남, 17세) 사건¹¹⁰⁾처럼 토벌과정 및 좌익 체포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¹¹¹⁾

1) 보성군 검백면 수남리 이병규 희생사건(직다-8277(1), 1948. 9월 경)

진실규명대상자 이병규(李秉圭, 남, 25)는 1948. 9월경 좌익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백지서 경찰에게 끌려간 뒤 검백지서에서 희생되었다.¹¹²⁾

이병규는 검백면 수남리에서 거주하던 농민이었다. 이병규가 희생당하기 며칠 전 검백지서가 좌익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뒤 경찰은 검백면에서 좌익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짐작되는 젊은 남자들을 모두 지서로 끌고 갔다. 이때 이병규를 포함한 수남리 청년들도 검백지서로 끌려가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지서로 끌려간 다음날 함께 끌려갔던 수남리 청년들은 살아 돌아왔지만 이병규는 경찰에게 철봉으로 맞아 죽었다. 가족과 마을주민들이 검백지서에서 상처투성이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¹¹³⁾

2) 벌교읍 소화다리 조동석 희생사건(직다-7641, 1948. 10. 29.)

진실규명대상자 조동석(趙東錫, 남, 36세)은 1948. 10. 29. 진압군에게 끌려가 벌교읍 소화다리 밑에서 희생되었다.¹¹⁴⁾ 이를 전인 10. 27.(음력 9. 25.)경 조동석의 형 조한송(趙漢

110) 「신청인 박홍임 진술조서」(2010. 2. 18.);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12.). 이복동은 이때 입을 총상으로 후유증을 겪었으며, 1982. 12. 10. 사망하였다.

111) 1949. 11. 28(음력 10. 9.)경, 보성군 웅치면 봉산리 주민 이현(李炫, 남, 23)이 반군에게 돈과 쌀을 제공했다고 누군가가 경찰에 밀고하여 웅치지서로 끌려가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이 사건처럼 “절차 없이 무조건 살해하다 보니 애매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다. 「참고인 이육 진술조서」(2010. 1. 18.); 진실화해위원회, 『보성·고흥 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112) 「신청인 이영래 진술조서」(2009. 2. 2.); 「참고인 이용우 진술조서」(2010. 3. 3.); 「참고인 조채임 진술조서」(2010. 3. 3.). 이병규가 희생당한 뒤 1948. 12월경 이병규의 형 이병조, 동생 이병수가 군경에게 희생당했고, 두 사람의 희생사실에 대해서는 2009. 11. 10. 진실규명 결정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보성·고흥 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113) 「참고인 조채임 진술조서」(2010. 3. 3.). 조채임은 이병규의 형수로 집으로 수습해온 이병규의 시신을 목격하였다.

114) 소화다리는 현재 ‘부용교’로 불린다. 여순사건 발발 이후 벌교에 들어온 진압군은 제6연대와 제3연대로 군경에 의한 토벌작전이 벌교 인근 지역에서 1948. 12월까지 계속되었다. 토벌작전 과정에서 반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주민들이 각 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벌교읍 소화다리 등에서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벌교읍 소화다리 희생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진실규명결정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보성·고흥 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43~44쪽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2』, 1991년, 171~172쪽

松, 남, 46세)은 당시 인민위원장을 했다는 마을주민의 모략을 받고 면 지서에서 희생되었다.¹¹⁵⁾

조동석은 사건 당시 순천 낙안면 상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여순사건 발발 후 낙안면에 들어온 반군이 후퇴하자 진압군이 들어왔다. 진압군은 부역자를 색출하기 위해 낙안면과 벌교읍 일대의 남자들을 낙안지서로 연행하였다. 조동석·조한송 형제도 이때 낙안지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던 중 조한송은 1948. 10. 27. 낙안지서 앞에서 사살되었고, 이틀 뒤인 10. 29. 조동석은 벌교로 끌려가 소화다리 밑에서 사살되었다.

가족들이 소화다리 밑에서 조동석의 시신을 수습해왔다. 집으로 수습해온 조동석의 시신을 목격한 조영자는 시신을 수습해온 가족들로부터 소화다리 밑에 시신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¹⁶⁾

3)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유제경 희생사건(직다-8364, 1948. 10월 말)

진실규명대상자 유제경(柳濟旻, 남, 25세)은 1948. 10월 말, 정흥리 주민 4명과 함께 좌익 활동 혐의를 받고 끌려가 득량지서 옆 산에서 진압군과 경찰에게 희생되었다.¹¹⁷⁾

유제경은 득량면 정흥리 주민으로 사건 당시 보성농업실업학교 학생이었다. 여순사건 발발 이후 보성군 득량면에서 지방좌익이 주도한 인민재판이 열려 득량면의 우익인사 ○○○, ○○○ 등 일부 주민이 반군과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되었다. 그 뒤 반군이 후퇴하고 득량지서 경찰들과 진압군들이 정흥리에 들어와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반군에 협조한 주민들을 색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 ○○○의 가족은 여순사건 발발 후 인민재판을 할 당시 유제경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서 유제경을 좌익으로 지목하였다. 유제경은 경찰과 진압군에 의해 득량지서로 끌려간 뒤 지서 옆 산으로 끌려가 사살되었다.¹¹⁸⁾ 사건발생 후 유제경이 희생되었다는 소문이 들려 집안 일꾼들이 시신을 수습하였다.¹¹⁹⁾

115) 「신청인 조영 진술조서」(2008. 3. 10.); 「참고인 조영자 진술조서」(2010. 1. 26.). 조한송의 희생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진실규명 결정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125쪽.

116) 「참고인 조영자 진술조서」(2010. 1. 26.). 조영자는 집으로 수습해온 사살당한 시신을 목격하였다.

117) 「신청인 유일상 진술조서」(2010. 2. 2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13.). 신청인 유일상은 원래 유제경의 조카로, 유제경이 미혼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후 양자가 되었고, 사건에 대해서는 집안 어른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 참고인 이○○는 사건 당시 유제경과 함께 득량지서로 끌려갔고, 그 뒤 보성경찰서로 이송되어 한달 가량 수감되어 있다가 풀려났다. 이○○는 유제경 외 함께 끌려간 마을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기억하지 못했다.

118)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13.).

119) 「참고인 안○○ 진술조서」(2010. 4. 30.).

사. 순천지역 사건

여순사건 발발 후 진압군은 1948. 10. 23. 오전 11시경 순천을 탈환하고 오후에는 시가지 소탕전을 완료했다. 그 뒤 순천에 주둔한 국군 제2연대, 제3연대, 제4연대(나중에 20연대로 개편), 제12연대, 제15연대 소속 부대원과 순천경찰서 경찰에 의해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¹²⁰⁾

황전면 회룡리 주민 정병우(鄭炳祐, 남, 18)와 김홍수(金洪壽, 남 17)는 1948. 11. 21. 반군을 색출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온 제12연대 군인에게 구타당해 척추와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¹²¹⁾ 승주읍 두월리 주민 박소아(朴小兒, 여, 42)는 1948. 11.경, 반군 협조자를 색출한다며 마을주민들을 총으로 위협하던 쌍암지서 경찰에 의해 옆구리에 총상을 입었다.¹²²⁾ 서면 청소리 주민 김학건(金學乾, 남, 24)은 1948. 12. 1.(음력 11. 1.)경 순천경찰서와 구례경찰서에 끌려가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¹²³⁾

1)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윤주한 희생사건(직다-9106, 1949. 8. 23.)

매산중학교 학생이었던 진실규명대상자 윤주한(尹柱漢, 남, 17)은 여순사건 발발 후 반군 심부름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고, 구타와 고문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자택으로 돌아온 뒤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 받다가 1949. 8. 23.(음력 7. 30.) 사망하였다.¹²⁴⁾

여순사건 진압 뒤 경찰토벌대, 15연대, 해룡지서 경찰들이 해룡면에서 반란 동조 및 반군 협력 혐의자들을 연행하여 조사하면서 고문한 뒤 사살하였다. 용전리는 해룡면에서 두 번째로 피해가 큰 지역이다. 1948년 10월 말 경, 해룡지서 순경이 용전리 주민 이기신과 마을청년들을 연행하여 고문하면서 조사한 뒤 순천경찰서로 이송하였다. 경찰은 순천

120) 한국전쟁 발발 후에도 빨치산 협조 혐의로 인한 민간인 피해사건이 발생하였다. 서면 장원중(張源鍾, 남, 17)은 1952. 6. 15. 마을 야경을 서던 중 빨치산이 마을에 내려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면지서 경찰들이 빨치산을 향해 쏜 총에 오른쪽 머리를 맞아 총상을 입었다. 『신청인 장원중 진술조서』(2008. 5. 9.); 『참고인 장○○ 진술조서』(2010. 2. 24.);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 7. 16.); 1951. 2. 27. 경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주민 이광표(李光杓, 남, 46)는 빨치산의 집을 저주했다는 이유로 송광지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은 뒤 이읍리 이읍마을 셋돌바위에서 사살되었다. 『참고인 이용순 진술조서』(2010. 2. 4.); 『참고인 이두석 진술조서』(2010. 4. 27.)

121) 『신청인 정병우 진술조서』(2008. 3. 11.); 『신청인 김홍수 진술조서』(2008. 3. 1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2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25.).

122) 『신청인 이중관 진술조서』(2008. 4. 25.); 『참고인 강○○ 진술조서』(2010.1.26); 『참고인 강○○ 진술조서』(2010. 1. 26.).

123) 『신청인 김학건 진술조서』(2008.3.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1.26).

124) 『신청인 윤상근 진술조서』(2008. 4. 27.); 『참고인 윤영근 진술조서』(2010. 1. 27.).

경찰서에 감금된 이들 중 일부는 형무소로 보내고, 이기신 등 25명을 순천 생목동 부근 공동묘지에서 사살하였다.¹²⁵⁾ 윤주한도 이때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것으로 판단된다.¹²⁶⁾

참고인 윤영근의 진술에 따르면, 온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든 채 교도소에서 돌아온 윤주한은 거동을 하지 못하여 매일 누워 있었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 주변 사람들이 받아냈다고 한다.¹²⁷⁾

2)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 이영근 등 7명 희생사건(직다-10584, 1949. 10. 22.)

진실규명대상자 이영근(李榮根, 남, 45)은 1949. 10. 22.(음 9. 1.)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송광면 월산리 추동마을 질등재에서 제15연대 군인들에 의해 칼과 대검 등에 찔려 희생되었다. 이때 같은 마을 주민 염순섭(廉順燮, 남, 37), 강대영(姜大永, 남, 41), 양영묵(梁永默, 남, 45), 윤송치(尹松致, 남, 38), 하경식, 김우열 등 6명도 이영근과 함께 희생되었다.¹²⁸⁾

제15연대 군인¹²⁹⁾ 백여 명은 1949. 10. 22. 송광면 월산리 추동마을에 들어와서 마을주민들을 담배건조장으로 소집한 뒤 빨치산 협조자를 색출하였다. 군인들은 마을주민들이 아무도 빨치산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자 주민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빨치산에 협조했다고 자발적으로 밝히는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이므로 살려주겠다고 회유하였다. 이에 이영근 등 9명이 “빨치산의 짐을 운반해준 적이 있다. 밥을 해준 적이 있다”며 나섰고, 군인들은 이들을 따로 분류하였다.¹³⁰⁾

군인들은 주민들에게 밥을 짓게 한 뒤 이영근 등 9명에게 밥과 반찬을 지게에 지게 하고 마을에서 1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추동마을 질등재로 끌고 갔다. 질등재에 도착한 군인들은 끌고 간 9명을 질등재 비탈길에 다섯 걸음 간격으로 세운 뒤 한 명 씩 목과 등을 찔

125)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106 쪽.

126) 국가기록원 등지에서 판결문, 수용자 신분장부, 수형인 명부 등을 조사하였고, 목포형무소에 의뢰하였으나 윤주한 관련 기록은 찾지 못하였다.

127) 『참고인 윤영근 진술조서』(2010. 1. 27.)

128) 『신청인 채아영 진술조서』(2009. 2. 2.); 『참고인 임○○ 진술조서』(2009. 2. 2.); 『참고인 양재옥 진술조서』(2009. 2. 7.); 『참고인 강봉원 진술조서』(2009. 2. 7.); 『참고인 염호인 진술조서』(2009. 2. 15.). 참고인 강봉원, 염호인은 각각 부친 강대영과 염순섭의 시신을 목격하였다.

129) 일부 참고인들은 당시 가해부대를 백골부대라고 지목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제15연대 소속 군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15연대는 순천 탈환 이후부터 1949년에 걸쳐 순천남국민 학교, 순천농림중학교 등지에 주둔하면서 순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을 수색하고 주민을 연행한 뒤 마을을 소각하였다. 또 연행된 주민들을 불법적으로 집단 사살하였다. 『참고인 염호인 진술조서』(2009. 2. 15.);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72쪽, 166쪽.

130) 『참고인 양재옥 진술조서』(2009. 2. 7.); 『참고인 강봉원 진술조서』(2009. 2. 7.)

러 죽였다.¹³¹⁾

이때 맨 뒤에 서 있던 양재율은 죽을 각오로 비탈길을 뛰어내려 간신히 목숨을 구하였고, 김주열은 송광서국민학교 소사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죽음을 면하였다. 그러나 이영근, 양영목, 강대영, 염순섭, 김우열, 윤송치, 하경식 등 7명은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다. 군인들은 시신을 그 자리에 방치한 채 화순 동북면 방향으로 떠났고, 가족들과 마을주민들이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¹³²⁾

아. 신안지역 사건

○ 신안군 하의면 상태서리 박정은 희생사건(직다-7788, 1949. 1. 4.)

진실규명대상자 박정은(朴正恩, 남, 51세)은 1949. 1. 4.(음력 12. 6.) 신안군¹³³⁾ 하의면 상태동리 가락마을에서 경찰에게 희생되었다.¹³⁴⁾

박정은의 사촌동생 박만득은 여순사건 당시 14연대 소속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여순사건 발발 후 동료 3명과 함께 배로 이동하던 중 고향인 상태서리 근처로 돌아왔다. 못 보던 배가 선착장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마을주민이 신안군 하의지서에 신고하자 박만득은 피신하였고, 경찰이 상태서리로 들어와 박정을 앞세우고 마을주민들을 동원해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박만득을 찾아다녔다.¹³⁵⁾

경찰은 박만득을 찾지 못하자 상태동리 가락마을에서 박정을 사살하였고, 2-3일 후 박만득도 금산 아래 목넘기골에서 사살되었다.¹³⁶⁾

박정의 형제들은 경찰이 두려워 사건발생 직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 시신을 수습하였다.¹³⁷⁾

131) 참고인들은 사건현장에서 생환한 양재율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전해 들었다. 『참고인 양재옥 진술조서』(2009. 2. 7.); 『참고인 강봉원 진술조서』(2009. 2. 7.)

132) 『참고인 임○○ 진술조서』(2009. 2. 2.); 『참고인 양재옥 진술조서』(2009. 2. 7.); 『참고인 강봉원 진술조서』(2009. 2. 7.); 『참고인 염호인 진술조서』(2009. 2. 15.)

133) 해방 당시 무안군은 현재의 신안군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지역의 치안은 목포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1969. 1. 1.에 이르러서야 신안군은 무안군에서 분리되었다. 본 결정서에서는 현재의 지명으로 사건명을 정하였다. 신안군, 『신안군지』, 2000년, 202쪽.

134) 『신청인 박옥석 진술조서』(2010. 1. 20.);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 4. 2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4. 29.). 신청인은 시신을 수습한 부친 박일은(朴一恩)에게서 숙부 박정은 희생사건에 대해 들었다.

135)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 4. 2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4. 29.). 경찰이 마을주민들을 동원하여 박만득을 찾으러 다닐 때 박○○은 무서워서 집에 숨어 있었고, 김○○은 이때 동원되어 박만득을 찾으러 다니다가 박정은이 사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136) 『참고인 박○○ 진술조서』(2010. 4. 2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4. 29.).

자. 영암지역 사건

여순사건 발발 후 반군의 일부가 영암지역을 점령했으며, 이들은 1948. 11월부터 한국 전쟁 발발 전까지 지서, 관공서 등을 습격하여 이 지역에서는 군경토벌작전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특히 신청사건이 발생했던 금정면은 신북면과 함께 유치 국사봉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전쟁 발발 전에 전남인민유격대총사령부가 있었던 곳이라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와중에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¹³⁷⁾

1)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최윤성 희생사건(직다-8917, 1949. 4. 8.)

진실규명대상자 최윤성(崔潤成, 남, 33세)은 1949. 4. 8.(음력 3. 10) 영암지역에서 반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진압군에게 끌려가 진압군이 주둔하고 있던 강진에서 희생되었다.¹³⁹⁾

최윤성은 금정면 남송리 임곡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임곡마을 이장을 했던 것 외에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았다.¹⁴⁰⁾

최윤성은 희생당하기 약 일주일 전, 좌익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¹⁴¹⁾ 진압군에 의해 강진의 진압군 주둔지로 끌려갔다. 진압군이 구덩이를 파고 함께 끌려간 신원미상의 다수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최윤성은 총알이 옆구리를 스쳐 부상만 당한 채 자택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가족들은 계속 이렇게 숨어서 지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윤성이 돌아왔다고 지서에 보고하였고, 지서에서는 이를 진압군 부대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진압군은 1949. 4. 8. 금정면 소재지의 약방에서 최윤성을 다시 연행해 강진에서 사살하였다.

최윤성이 끌려간 뒤 부친 최병환이 최윤성을 구하고자 돈을 구해 강진으로 갔으나 총상 입은 시신만 수습하여 돌아왔다.¹⁴²⁾

137) 「신청인 박옥석 진술조서」(2010. 1. 2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4. 29.).

138) 진실화해위원회, 『피해자현황조사』, 2007. 12. 16., 686쪽. 나주, 목포, 해남, 완도, 진도, 강진, 장흥, 함평, 무안, 화순 등지에서 활동하던 좌파의 핵심세력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본 지역에 들어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에서는 군경 토벌작전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39) 「신청인 최윤호 진술조서」(2009. 1. 14.) 최윤성을 사살한 진압군이 당시 강진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으며, 부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피해자현황조사』에는 최윤성이 1949. 5. 5. 강진군 군부대 주둔지에서 군인에게 사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피해자현황조사』, 2007. 12. 16.

140) 「신청인 최윤호 진술조서」(2009. 1. 14.); 「참고인 최○○ 진술조서」(2010. 1. 21.)

141) 진압군에게 붙잡힌 좌익 중 한 명이 최윤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정확히 누구에게 어떤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신청인 최윤호 진술조서」(2009. 1. 14.)

142) 신청인은 부친이 수습해 온 최윤성의 시신이 입관된 모습을 목격하였다. 「신청인 최윤호 진술조서」(2009.

2)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김병남 희생사건(직다-8473, 1949. 9. 23.)

진실규명대상자 김병남(金炳南, 남, 29세)은 1949. 9. 23. 금정면 지서 경찰에게 끌려가 나주시 남평읍 부근 하천에서 희생되었다. 이때 함께 끌려갔던 김재윤, 성명미상자 1명도 함께 희생되었다.¹⁴³⁾

김병남은 사건 당시 금정면 소재지인 용흥리에서 약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정치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다.¹⁴⁴⁾ 1949년 여름, 빨치산들이 김병남의 약방에서 약을 사갔고, 그 뒤 경찰에 붙잡힌 빨치산이 김병남의 약방에서 약을 사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김병남은 금정면 지서 경찰에 의해 지서로 끌려갔다. 이때 금정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김재윤, 강○○, 서○○ 등 3명, 임○○, 나○○ 등 금정면 주민 등 10여 명이 함께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3일 뒤, 김병남, 김재윤, 강○○, 성명미상자 1명 등 4명은 전라남도경찰국으로 이송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석방되었다.

김병남의 동생 김정두는 김병남이 끌려가고 일주일 가량 지난 뒤 전라남도경찰국에 갔다가 김병남의 희생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평읍 부근 하천에서 시신을 발견하였다. 사건 현장에는 김병남, 김재운, 성명미상자 등 3명의 시신이 함께 놓여 있었다.¹⁴⁵⁾

차. 장성지역 사건

○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강대석 가족 9명 희생사건(직다-992, 1949. 12. 20.)

진실규명대상자 강대석(姜大錫, 남, 48세), 강대석의 부인 김기묘(金基妙, 여, 40세), 장남 강가원(姜可遠, 남, 21세), 차녀 강점순(姜占順, 여, 10세), 차남 강시원(姜施遠, 남, 7세), 삼남 강인원(姜仁遠, 남, 3세), 며느리 박○○(이름미상, 강가원의 부인), 삼녀 강점희(여, 4세), 손자 강○○(강가원의 아들, 이름미상, 2세) 등 일가족 9명은 1949. 12. 20.(음력 11. 1.) 빨치산 협조 혐의를 받고 황룡면 관동리 자택에서 장성경찰서 경찰토벌대에 의해 희생되었다.¹⁴⁶⁾

1. 14.)

143) 『신청인 김정두 진술조서』(2008. 2. 2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22.). 신청인은 김병남의 희생 일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김병남이 끌려간 지 일주일 정도 뒤인 1949. 9. 23. 희생되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날을 희생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현황조사』에는 김병남이 1948. 11월 경 나주군 남평에서 경찰에게 사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피해자현황조사』, 2007. 12. 16.

14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22.)

145) 시신을 수습한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김병남과 함께 끌려갔던 강○○은 부상을 입고 살아나 입산했다고 한다. 「신청인 김점두 진술조서」(2008. 2. 2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22.)

146) 「신청인 강점례 진술조서」(2007. 9. 1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7. 9. 13.); 「참고인 기○○ 진술조

황룡면 관동리는 산으로 둘러싸여 빨치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다. 강대석 가족들은 평범한 농민으로, 이들은 서씨 문중의 선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동리 속은마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주거 조건 때문에 강대석 가족은 경찰로부터 빨치산에게 밥을 해주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혐의를 받았다.¹⁴⁷⁾

사건 당시 경찰토벌대원들이 집을 포위하고 총을 난사하여 강대석 등 7명은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강대석의 손자 강○○와 삼녀 강점희는 총상을 입었다. 그 뒤 강○○은 엉덩이에서 총알을 제거하지 못해 한 달 여 뒤 사망하였고, 강점희는 오른쪽 다리에서 총알을 제거하지 못해 1년 여 뒤에 사망하였다.¹⁴⁸⁾

사건발생 직후 박동구 등 마을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집 뒤에 매장하였다.¹⁴⁹⁾

카. 장흥지역 사건

여순사건 이후 반군들은 장흥군에 진입하여 경찰과 충돌한 뒤 유치산으로 들어갔으며, 1948. 11월경 제20연대 소속 군인들이 장흥군에 파견되어 진압작전을 한 뒤 철수하였다. 1949년에도 유치산 입산자들이 활동을 중단하지 않자 국군이 파견되어 군경합동 토벌작전이 이루어졌고 국군은 1950년 초에야 철수하였다.

1)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김난금 희생사건(직다-9338, 1949. 10. 14.)

진실규명대상자 김난금(金暖金, 남, 48세)은 1949. 10. 14.(음력 8. 23.) 장흥경찰서 경찰에 의해 금산리 대치마을 앞 논으로 끌려가 희생되었다.¹⁵⁰⁾

김난금의 집은 마을에서 떨어진 제암산 아래 있었는데, 제암산은 빨치산들의 근거지였다. 1949. 10. 13. 밤 빨치산들이 찾아와 밥을 요구해서 김난금이 밥을 주었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해달라고 해서 백씨(70대)라는 마을 노인을 소개하였다. 다음날인 10. 14.

서」(2010. 1. 13.); 「참고인 최○○ 진술조서」(2010. 1. 21.). 강가원의 부인 박○○, 강대석의 삼녀 강점희, 강대석의 손자 강○○은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14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7. 9. 13.); 「참고인 기○○ 진술조서」(2010. 1. 13.)

148) 강대원 가족 중에서 출가한 장녀 강점례만 살아남았다. 「신청인 강점례 진술조서」(2007. 9. 13.)

149) 참고인 김○○은 사건발생 당일 새벽에 총성을 듣고 아침에 강대원의 집으로 가서 마을 어른들이 강대원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장성경찰서 경찰토벌대가 아침에 마을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또 참고인 기○○와 최○○은 시신을 수습한 박○○로부터 사건에 관해서 들었다고 한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7. 9. 13.); 「참고인 기○○ 진술조서」(2010. 1. 13.); 「참고인 최○○ 진술조서」(2010. 1. 21.).

150) 신청인은 부친 김난금이 집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잠시 후 총성을 들었다. 참고인 강충백은 당시 마을 앞 논으로 소집되어 김난금이 사실당하는 모습 등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다. 「신청인 김충백 진술조서」(2010. 1. 21.); 「참고인 강충백 진술조서」(2010. 1. 20.)

오후 1시경, 백씨가 장흥읍 성불리까지 서신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는 도중 경찰에게 발각되었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장흥경찰서 경찰들이 대치마을로 출동하였다.

김난금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경찰에 의해 대치마을 주민 30여 명이 모여 있는 대치마을 앞 논으로 끌려가 구타당한 뒤 사살되었다.¹⁵¹⁾ 김난금이 끌려 나간 뒤 경찰들이 집에 불을 질러 가족들은 김난금을 따라 나가지 못한 채 마당에 있었다. 잠시 후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마을주민들이 김난금의 희생사실을 알려주었다. 김난금이 사살된 뒤 경찰은 마을주민 3명을 더 끌고 나와 구타했으나 사살하지는 않았다.¹⁵²⁾ 이튿날 가족들이 김난금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2) 장흥군 관산을 농안리 손금태·김소례 부부 희생사건(직다-565, 595, 1950. 1. 5, 1950. 6. 6.)¹⁵³⁾

진실규명대상자 손금태(孫金台, 남, 52세)와 부인 김소례(金小禮, 여, 48세)는 1950. 1. 5.(음력 11. 17.) 관산지서 경찰에 의해 농안리 우물가로 끌려가서 구타당한 뒤 김소례는 희생당했고, 손금태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실신하였다가 1950. 6. 6. 부상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¹⁵⁴⁾

손금태 가족과 손금태의 첫째형 손일태 가족, 둘째형 손돈태 가족은 관산을 농안리에 서 거주하고 있었다. 관산을 농안리는 여순사건 발발 후 반군들이 숨어든 천관산 자락에 자리잡은, 손씨와 김씨 집성촌이었다. 손씨 집안 젊은이들은 장흥군 좌익 활동을 주도했던 손○○의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해 여순사건 발발 후 손씨 집안 다수가 좌익 또는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사살되었다.¹⁵⁵⁾

1950. 1. 5. 저녁 9시경 관산지서 소속 경찰 5명이 농안리에 들어와서 손돈태·이부접 부부, 손금태·김소례 부부, 손돈태의 사촌 여동생 박○○(이름, 나이 미상)을 마을 우물가로 끌고 갔다. 손씨 일가를 마을 우물가로 끌어낸 경찰은 손돈태에게는 좌익 활동을 하다 도피 중인 아들 손천석을, 손금태에게는 14연대에 근무하던 중 여순사건 발발 후 행방 불명된 아들 손용반을 찾아내라며 총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하였다. 이에 손돈태와

151) 「신청인 김용백 진술조서」(2010. 1. 21.)

152) 「참고인 강충백 진술조서」(2010. 1. 20.)

153) 본 사건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되었고, 손금태·김소례 부부와 함께 구타당하고 사살당한 손돈태·이부접 부부의 희생사실은 진실규명 결정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전남 서남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군) 진실규명·불능결정서」, 2009. 4. 20.

154) 「참고인 손복임 진술조서」(2010. 1. 22.); 「신청인 손용갑 진술조서」(2008. 11. 13)

155) 「참고인 손복임 진술조서」(2010. 1. 22.); 「신청인 손용갑 진술조서」(2008. 11. 13.)

손금태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실신하였다. 이부접 등이 항의하자 경찰은 이부접과 김소레, 박○○ 3명을 일렬로 세워놓고 사살하였다.¹⁵⁶⁾

그 뒤 실신한 손돈태와 손금태는 친척들의 도움으로 깨어났고, 손돈태는 자택으로, 손금태는 강진에 있는 누나 집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손돈태는 1년 뒤, 손금태는 4개월 뒤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¹⁵⁷⁾

4. 진실규명대상자와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의 희생사실 여부

진실규명대상자와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자의 희생사실 여부는 문헌자료와 진술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문헌자료로는 제적등본과 족보, 각종 명부, 경찰서 소장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제적등본을 통해서도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희생자의 인적사항과 제적등본 상 사망일을 확인하여 표기하였다.¹⁵⁸⁾ 또 『사실조사서』등 각종 문헌자료에 희생자들의 희생사실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등재된 경우에는 성명, 나이, 희생연월일과 희생 장소, 활동 경력 등을 표기하였다.

다음으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진행하여 희생사건의 실재 여부, 시신을 수습하였는지 여부, 희생 장소, 제삿날 등을 확인하였다.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거나 희생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제삿날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로 표시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와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희생자의 희생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신청인·참고인 진술 또는 문헌자료를 통해 희생 시기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희생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이나 문헌자료를 통해 희생 시기와 장소가 밝혀졌지만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경우에는 희생사실이 ‘추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44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21명 등 65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실규명대상자 1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8명 등 9명의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156) 신청인과 참고인은 우물가로 끌려간 손금태 등이 구타당하고 사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참고인 손복임 진술조서』(2010. 1. 22.); 『신청인 손용갑 진술조서』(2006. 11. 16.)

157) 『참고인 손복임 진술조서』(2010. 1. 22.); 『신청인 손용갑 진술조서』(2008. 11. 13.)

158) 희생자가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재’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로, 제적등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확보’로 표기하였다.

〈표 5〉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표 6〉은 조사과정에서 인정한 희생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을 사건발생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5〉 진실규명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사건번호	연 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 나이)	희생일, 희생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시신 수습 여부	제삿날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고흥군									
직다-6471	1	정병룡 (丁炳龍, 남, 2)	1948.12.10.(음11.10.)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	1964.3.5. 대서면 남정리 205번지	○	×	정하천 (시신목적) 정계식 (전문)	확인
곡성군									
직다-5416	2	고규석 (高奎錫, 남, 24)	1948.11.21.(음10.21.) 목사동면 평리 뒷밭	×	1950.10.20. 본적지	○	음 10.24. (조부의 제삿날)	고영옥 (전문) 정순춘 (시신목적)	확인
직다-505	3	마준화 (馬俊華, 남, 48)	1949.6.18.(음5.22.) 석곡면 방승리 소재 밭	족보 -1949.5.22.. 사망	1960.8.19. 본적지	○	음 5.21.	마인석 (전문) 마재석 (연행목적)	확인
	4	마임석 (馬林錫, 남, 42)			1950.5.21. 본적지	○	음 5.21.		확인
	5	마성숙 (馬成淑, 남, 26)			1954.6.15. 본적지	○	음 5.21.		확인
직다-6758	6	박판순 (朴判順, 남, 56)	1949.7.26.(음7.1.) 옥과면 율사리 옥과천	옥과면사무소 확 인서 : 박판순이 희생 당시 금단 보 관리	1950.9.30. 본적지	○	음 6.30.	김원순 (전문) 박복순 (총성 듣고 시신목적)	확인
직다-8020	7	신삼균 (申三均, 남, 21)	1949.10.10.(음8.19.) 죽곡면 원달리 감나무동 개울	×	1949.8.10. 본적지	○	음 8.18.	신현호 (전문) 박병주 (희생장면 목적) 정순학 (희생장면 목적)	확인
직다-8844	8	신봉옥 (申奉玉, 남, 48)	1950.3.9. 죽곡면 남양리 자택	×	1950.4.25. 본적지	○	음 1.20.	신현호 (전문) 신석균 (상해 입은 모습 목적)	확인

제 3 권

사건번호	연 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性, 나이)	희생일, 희생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시신 수습 여부	제삿날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직다-2808	9	김만수 (金萬洙, 남, 36)	1950.5.16.(음3.30.) 옥괴면 무창리 강변	족보 -1950.3.30. 사망	1952.7.18. 본적지	○	음 3.29.	김용철 (전문) 오정옥 (출생목격) 신만 (전문)	확인
구례군									
직다-2408	10	도재덕 (都在德, 남, 40)	1948.11.19.(음10.19.) 구례읍 봉서리 자택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 최종결과보고서	1948.10.19. 본적지	○	음 10.18.	도광석 (사건현장에 서 생존) 김기옥 (전문) 정영식 (전문)	확인
	11	도광열 (都光烈, 남, 9)			1948.10.19. 본적지	○	음 10.18.		
	12	도광옥 (都光玉, 남, 1)			1948.10.19. 본적지	○	음 10.18.		
직다-473	13	표귀중 (表貴鍾, 남, 32)	1948.11.20.(음10.20.) 구례읍 양정지구	×	1954.6.17. 고창군 아산면 구암리 117번지	×	음 10.21.	표안설 (전문) 표경자 (전문) 박병례 (연행목격) 이종춘 (전문)	추정
직다-606									
직다-911	14	김길동 (金吉東, 남, 22)	1948.11.24.(음10.24.) 간전면 간문천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 최종결과보고서	1951.3.9. 본적지	○	음 10.23.	김순심 (전문) 한정수 (연행목격)	확인
	15	김길수 (金吉洙, 남, 10)			1953.5.20 본적지	○	음 10.23.	윤도임 (전문)	확인
직다-10133	16	임창순 (林昌淳, 남, 41)	1948.11월 간전면 동방천	×	1949.7.15.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799번지	○	음 7.4.	임정남 (전문) 임상진 (전문) 이상태 (전문)	확인
직다-2723	17	임태규 (林泰圭, 남, 32)	1949년 봄 구례읍 봉서리 구례농 고 옆 개울가	×	1954.6.10.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543번지	○	×	임창규 (전문) 김진옥 (시신목격)	확인
직다-8779	18	임아지 (林阿只, 여, 37)	1949.7.4.(음6.9) 간전면 중대리 소재 논	×	1957.8.5. 본적지	○	음 6.8.	윤우근 (시신목격) 이기동 (전문) 윤근석 (시신목격)	확인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사건번호	연 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性, 나이)	희생일, 희생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시신 수습 여부	제사날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직다-2433	19	박판옥 (朴判玉, 남, 29)	1949.12.17.(음 10.28.) 산동면 원촌국민학교 뒷산	×	1950.12.20.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9번지	○	음 10.27.	박기성 (전문) 양희선 (전문) 임공순 (시신목격)	확인
담양군									
직다-438	20	고광율 (高光律, 남, 31)	1949.10.6.(음8.15.) 대덕면 문학리 중례골	×	1949.10.15. 고서면 교산리 327번지	○	음 8.15.	고광필 (시신수습) 최분님 (전문) 고영자 (전문) 최창주 (사건현장 목격)	확인
직다-8524	21	김점술 (金点述, 남, 14)	1949.10.24.(음9.3.)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용구마을 뒷산	×	1949.10.20. 대전면 서옥리 264번지	○	음 9.2.	이현숙 (시신수습)	확인
	22	김종철 (金宗喆, 남, 28)		×	1959.3.7. 대전면 서옥리 264번지	○	음 9.2.	강상구 (전문) 박성기 (전문)	확인
	23	박균상 (朴均祥, 남, 16)		×	1950.10.25. 대전면 서옥리 246번지	○	음 9.2.	남병영 (전문) 김봉진 (전문)	확인
	24	강용구 (姜龍求, 남, 18)		×	사망일자 미가재	○	음 9.2.		확인
목포시									
직다-4363	25	백경조 (白敬祚, 남, 32)	1948.12.5.(음11.5) 목포대학교	『사실조사서』 (순천경찰서)	1948.12.4. 순천시 풍덕동 942번지	○	음 11.4.	백홍영 (시신수습)	확인
보성군									
직다-8277(1)	26	이병규 (李秉圭, 남, 25)	1948.9월 보성군 겸백지서	×	사망일자 미가재	○	×	이용우 (시신수습해 오는 장면 목 격) 조채임 (시신목격)	확인

제 3 권

사건번호	연 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姓, 나이)	희생일, 희생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시신 수습 여부	제삿날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직다-7641	27	조동석 (趙東錫, 남, 36)	1948.10.29.(음9.27.) 보성군 벌교읍 소화다리	×	사망일자 미가재	○	음 9.26.	조영자 (시신목격)	확인
직다-8364	28	유제경 (柳濟景, 남, 25)	1948.10월 말 보성군 득량면 득량지 서 옆산	×	1968.5.11. 득량면 정흥리 1154번지	○	×	안삼순 (전문) 이방재 (전문) 이민주 (전문)	확인
순천시									
직다-9106	29	윤주한 (尹柱漢, 남, 17)	1949.8.23(음7.30) 해룡면 용전리 자택	×	1949.7.30. 해룡면 용전리 751	○	×	윤상근 (전문) 윤영근 (병 간호) 김봉조 (전문)	확인
직다-10584	30	이영근 (李榮根, 남, 45)	1949.10.22.(음9.1) 송광면 월산리 추동마을 질등재	족보 -1949.8.30. 사망	1951.8.30. 승주군 송광면 월산리 산 불상 번지(모후산)	○	음 8.29.	채아영 (전문) 양재옥 (전문) 강봉원 (시신수습) 염호인 (시신목격) 임병소 (전문)	확인
신안군									
직다-7788	31	박정은 (朴正恩, 남, 51)	1949.1.4(음12.6) 신안군 하의면 상태동리	×	1977.9.6. 하의면 상태서리 348번지	○	음 12.5.	박옥석 (전문) 박능산 (전문) 김준덕 (전문)	확인
영암군									
직다-8917	32	최윤성 (崔潤成, 남, 33)	1949.4.8.(음3.10.) 강진 진압군 주둔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 최종결과보고서	1949.4.19. 금정면 남송리 705번지	○	×	최윤희 (전문) 최윤숙 (전문)	확인
직다-8473	33	김병남 (金炳南, 남, 29)	1949.9.23.(음8.2.) 남평읍 인근 하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 최종결과보고서	1949.9.20. 금정면 아천리 394번지	○	음 8.2.	김정두 (시신수습) 김한용 (전문)	확인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사건번호	연 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姓, 나이)	희생일, 희생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시신 수습 여부	제삿날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장성군									
직다-992	34	강대석 (姜大錫, 남, 48)	1949.12.20.(음11.1.) 황룡면 관동리 자택		1950.10.30. 황룡면 관동리 197번지	○	음 10.30.	강점례 (전문) 김종민 (사신수습 장면목격) 기준서 (전문) 최병선 (전문)	확인
	35	김기묘 (金基妙, 여, 40)		×	1950.10.30. 황룡면 관동리 197번지	○	음 10.30.		확인
	36	강가원 (姜可遠, 남, 21)		×	1950.10.30. 황룡면 관동리 197번지	○	음 10.30.		확인
	37	강점순 (姜占順, 여, 10)		×	1950.10.30. 황룡면 관동리 197번지	○	음 10.30.		확인
	38	강시원 (姜施遠, 남, 7)		×	1950.10.30. 황룡면 관동리 197번지	○	음 10.30.		확인
	39	강인원 (姜仁遠, 남, 3)		×	1950.10.30. 황룡면 관동리 197번지	○	음 10.30.		확인
	40	박○○ (강가원 의 부인)		×	미등재	○	음 10.30.		확인
	41	강점희 (여, 4)		×	미등재	○	×		확인
42	강○○ (강가원 의 아들, 2)	×	미등재	○	×	확인			
장흥군									
직다-9338	43	김난금 (金暖金, 남, 48)	1949.10.14.(음8.23.) 장흥읍 금산리 대치마을 논	×	1949.8.23. 장흥읍 금산리 70번지	○	음 8. 22.	김용백 (연행장면, 시신목격) 강종백 (사실장면 목격)	확인
직다-565	44	손금태 (孫金台, 남, 52)	1950.6.6.(음4.21) 강진군 누이 자택	×	1971.3.5. 강진군 대구면 상흥리 428번지	○	음 4.20.	손용갑 (사건목격) 손복임 (사실장면 목격)	확인

제 3 권

사건번호	연 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性, 나이)	희생일, 희생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시신 수습 여부	제사날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직다-595	45	김소례 (金小禮, 여, 48)	1950.1.5.(음11.17.) 관산읍 농안리	×	1972.3.3. 강진군 대구면 상흥리 428번지	○	음 11.16.	손용갑 (사살장면 목격) 손복임 (사살장면 목격)	확인

〈표 6〉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사건번호	연 번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희생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性, 나이)	희생일, 희생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시신 수습 여부	제사날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곡성군									
직다-8020	1	신홍균 (申烘均, 남, 27)	1949.10.10.(음8.19) 죽곡면 원달리 감나 무동 개울	×	1953.3.5. 죽곡면 원달리 13	○	×	신현호 (전문) 박병주 (희생장면 목격)	확인
	2	김기태		×	미확보	○	×	정순학 (희생장면 목격)	확인
	3	정명옥		×	미확보	○	×	정순학 (희생장면 목격)	확인
구례군									
직다-473 직다-606	4	고판수	1948.11.20.(음10.20) 구례읍 양정지구	×	미확보	×	×	표안설 (전문) 표경자 (전문) 박병례 (연행목격) 이종춘 (전문)	추정
	5	곽상수		×	미확보	×	×		
	6	이중환 (李重煥, 남, 58)		×	1952.6.5. 토지면 파도리 353	×	×		
	7	장일수		×	미확보	×	×		
	8	장응벽		×	미확보	×	×		
	9	현세종		×	미확보	×	×		
	10	이중환의 처 1		×	미확보	×	×		
	11	이중환의 처 2		×	미확보	×	×		
직다-911	12	최대홍 (崔大洪, 남, 22)	1948.11.23. 간전면 간문천변	×	1948.12.27. 간전면 간문리 천변 무번지 (無番地)	○	음 11.23.	이강섭 (전문) 한광석 (전문)	확인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사건번호	연 번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희생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 나이)	희생일, 희생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사신 수습 여부	제사날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직다-2433	13	구정길 (具正吉, 남, 20)	1948.12.22. 산동면 시상리 꽃쟁이	×	1954.12.15. 산동면 내산리 361	○	×	구정문 (연행목적) 한봉금 (사신목적)	확인
직다-2433	14	한기범	1949.12.17.(음10.28.) 산동면 원촌국민학 교 뒷산	×	미확보	○	음 10.27.	양희선 (전문) 임공순 (사신목적)	확인

담양군

직다-8524	15	김달마 (金達馬, 남, 59)	1949.10.24.(음9.3.) 담양군 수북면 주평 리 옹구마을 뒷산	×	1955.11.30. 대전면 서옥리 369	○	음 9.2.	이현숙 (사신수습) 강상구 (전문) 박성기 (전문) 남병영 (전문) 김봉진 (전문)	확인
	16	김기팔 (남)		×	미확보	○	음 9.2.		확인
	17	김우명 (남)		×	미확보	○	음 9.2.		확인
	18	김용덕 (남)		×	미확보	○	음 9.2.		확인
	19	문○○ (남, 문도연 차남)		×	미확보	○	음 9.2.		확인
	20	박○○ (남, 박균수 동생)		×	미확보	○	음 9.2.		확인
	21	김○○ (남, 이름미상)		×	미확보	○	음 9.2.		확인
	22	박○○ (남, 신선이 사위, 이름미상)		×	미확보	○	음 9.2.		확인

순천시

직다-10584	23	양영묵 (梁永默, 남, 44)	1949.10.22.(음9.1.) 송광면 월산리 주동 마을 질등재	족보 -1949.9.1.사망	1960.5.7. 본적지	○	음 8.30.	임병소 (전문) 채아영 (전문)	확인
	24	강대영 (姜大榮, 남, 41)		족보 -1949.8.30.사망	1957.3.2. 본적지	○	음 8.30.	양재욱 (전문)	확인
	25	염순섭 (廉順燮, 남, 37)		족보 -1949.8.30.사망	1952.9.25. 보성군 문덕면 양동리 804	○	음 8.30.	강봉원 (사신수습) 염호인 (사신목적)	확인

제 3 권

사건번호	연 번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희생자		문헌자료 조사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 나이)	희생일, 희생장소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시신 수습 여부	제삿날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직다-10584	26	김우열	1949.10.22.(음9.1.) 송광면 월산리 추동 마을 질등재	×	미확보	○	음 8.30.		확인
	27	윤송치 (尹松致 남, 38)		×	사망신고×	○	음 8.30.		확인
	28	하경식		×	미확보	○	음 8.30.		확인
영암군									
직다-8473	29	김재운 (金在允, 남, 26)	1949.9.23. 나주시 남평읍 인근 하천	×	1962.7.8. 금정면 옹흥리 1034	○	×	김정두 (사신수습) 김한용 (전문)	확인

5. 가해주체와 희생이유, 불법성 여부

가. 가해주체

신청인·참고인 진술과 관련 군경 자료를 조사한 결과 1948. 9.부터 1950. 5. 16. 까지 전라남도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 등 11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3연대, 제12연대, 제15연대, 전남경찰국 산하 각 지역 경찰로 확인되었다.

국군 제3연대는 1948. 10. 말부터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원촌국민학교에서 주둔하며 토벌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살해하였다. 제3연대는 구례경찰서 경찰들과 함께 산동면 주민들을 원촌국민학교, 누에고치 판매소, 관산리 중동국민학교로 연행하여 고문하고 조사한 뒤 이 중 다수의 주민들을 반군 협조 혐의로 원달리 달전마을, 원촌국민학교 뒷산 등지에서 살해하였다.

국군 제12연대는 1948. 10월 하순과 1949년 상반기 순천시내와 구례읍에 주둔하면서 순천시내, 순천 황전면, 구례 각 면에서 반군 토벌 및 반군 협력자 색출작전을 하였다. 제12연대는 구례경찰서 경찰과 함께 1948. 11월부터 토벌작전 과정에서 구례읍 주민을 비롯하여 구례 각 면의 주민을 반군이나 빨치산 협조 혐의로 구례경찰서 등지로 연행하였고, 섬진강 양전지구, 간전면 간문천변 등지에서 살해하였다. 또 순천 황전면에서 반군 색

출 과정 중 주민을 구타하여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국군 제15연대는 순천 탈환 이후부터 1949년에 걸쳐 순천남국민학교 등지에 주둔하면서 순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을 수색하고 주민들을 연행한 뒤 마을을 소각하거나 연행된 주민들을 집단 사살하였다.¹⁵⁹⁾ 제15연대는 순천시 송광면에서 빨치산 협조 혐의로 주민들을 집단 살해하고, 보성군 읍어면에서 검문 중 무고한 주민을 반군으로 오인하여 총상을 입혔다.

반군 진압작전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했던 전남경찰국 산하 별교경찰서, 곡성경찰서, 담양경찰서, 목포경찰서, 보성경찰서, 순천경찰서, 영암경찰서, 장성경찰서, 장흥경찰서 등과 각 지역 지서 경찰, 경찰토벌대 역시 반군 토벌 및 반군 협력자 색출 작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본서나 읍면별 지서로 연행하여 고문, 구타한 뒤 해당 관내에서 살해하였다.

나. 희생이유

희생이유는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반군이나 빨치산 협조 혐의로 숙식이나 식량 제공, 노무동원, 반군이나 빨치산과의 연락이나 반군 은닉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은 15건으로, 당시 반군이나 빨치산 활동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그들의 강요를 거부할 수 없었고, 이에 불가피하게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반군이나 좌익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희생당한 경우로, 5건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가담 혐의로 지목되었다는 추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셋째, 군인이나 경찰이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 발포하여 희생된 경우다. 반군 토벌 작전 중 경찰이 민가를 향해 무차별 발포하여 집 마당에서 놀던 3세 아동이 사살된 경우, 방안에 민간인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민가를 향해 무차별 발사하여 가족 3명이 한꺼번에 사살된 경우, 논에서 작업 중인 민간인을 향해 발사하여 사살된 경우 등 4건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당시 군경이 수색이나 토벌작전 중 민간인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째, 반군 색출 과정이나 경찰서 등 습격사건 후의 보복성 조사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희생당하거나 무고와 모략으로 인해 희생당한 경우로 3건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159)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166쪽.

제 3 권

다섯째, 본 사건 자체와 무관한 대살(代殺)로, 제14연대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당한 경우로 2건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섯째, 반군이나 빨치산에게 협조한 뒤 지서에 자진 신고하러 갔다가 사살당한 경우로 1건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 7〉은 진실규명 신청된 사건별 가해주체 및 희생이유를 사건발생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7〉 사건별 가해주체 및 희생이유

연 번	사건번호	사건명	발생시기	희생자 (성별, 나이)	가해주체	희생이유
고흥군						
1	직다-6471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정병룡 희생사건	1948.12.10.	정병룡 (남, 3)	별교경찰서 경찰	경찰의 무차별 발사
곡성군						
2	직다-5416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고규석 희생사건	1948.11.21.	고규석 (남, 24)	목사동지서 경찰	반군 협조한 뒤 신고
3	직다-505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마준화 등 3명 희생사건	1949.6.18.	마준화 (남, 48) 마임석 (남, 42) 마성숙 (남, 26)	곡성경찰서 토벌대	빨치산 연락책 혐의
4	직다-6758	곡성군 옥과면 율사리 박판순 희생사건	1949.7.26.	박판순 (남, 56)	옥과지서 경찰토벌대	경찰의 무차별 발포
5	직다-8844	곡성군 죽곡면 남양리 신봉옥 희생사건	1950.3.9.	신봉옥 (남, 48)	죽곡지서 경찰	빨치산에게 식사 제공 후 신고
6	직다-8020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신삼균 등 4명 희생사건	1949.10.10.	신삼균 (남, 21) 등 4명	진압군	빨치산의 곡성경찰서 습격사건 후 보복
7	직다-2808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김만수 희생사건	1950.5.16.	김만수 (남, 36)	경찰토벌대	좌익 활동 혐의
구례군						
8	직다-2408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도재덕 가족 3명 희생 사건	1948.11.19.	도재덕 (남, 40) 도광열 (남, 10) 도광옥 (남, 1)	제12연대 진압군	군인의 무차별 발포
9	직다-473	구례군 구례읍 양정지구	1948.11.20.	표귀종 (남, 32)	제12연대 진압군	반군 협조 혐의 및 조사 방식 항의
10	직다-606	파도리 주민 희생사건		등 9명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발생시기	희생자 (성별, 나이)	가해주체	희생이유
11	직다-911	구례군 간전면 간문천변 희생사건	1948.11.24.	김길동 (남, 22) 김길수 (남, 10)	제12연대 진압군	반군 협조 혐의
12	직다-10133	구례군 간전면 동방천 임창순 희생사건	1948.11월	임창순 (남, 41)	제3연대 진압군	반군 연락책 혐의
13	직다-2723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임태규 희생사건	1949년 봄	임태규 (남, 32)	제12연대 진압군	빨치산 협조자로 무고 받음
14	직다-8779	구례군 간전면 중대리 임아지 희생사건	1949.7.4.	임아지 (여, 37)	제15연대 진압군	논에서 작업 중 빨치 산으로 오인됨
15	직다-2433	구례군 산동면 원촌국 민학교 뒷산 박판옥 희생사건	1949.12.17.	박판옥 (남, 29)	제3연대 군인	빨치산에게 식사 제공 혐의

담양군

16	직다-438	담양군 대덕면 중례골 고광울 희생사건	1949.10.6.	고광울 (남, 31)	담양경찰서 경찰과 군인	좌익 활동 혐의
17	직다-8524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용구마을 12명 희생사건	1949.10.24.	김점술 (남, 14) 김종철 (남, 28) 박균상 (남, 16) 강용구 (남, 18) 등 12명	담양경찰서 경찰	빨치산 협조자로 무고 받음

목포시

18	직다-4363	목포대학교 백경조 희생사건	1948.12.5.	백경조 (남, 32)	목포경찰서 경찰	좌익 활동 혐의
----	---------	-------------------	------------	----------------	----------	----------

보성군

19	직다-8277(1)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이병규 희생사건	1948.9월	이병규 (남, 25)	겸백지서 경찰	좌익 활동 혐의
20	직다-8364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유제경 희생사건	1948.10월 말	유제경 (남, 26)	득량지서경찰, 진압군	좌익 활동 혐의
21	직다-7641	별교읍 소화다리 조동석 희생사건	1948.10.29.	조동석 (남, 36)	진압군	부역 혐의

순천시

22	직다-9106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윤주한 희생사건	1949.8.23.	윤주한 (남, 17)	목포형무소	반군 심부름 혐의
23	직다-10584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 이영근 등 7명 희생사건	1949.10.22.	이영근 (남, 45) 등 7명	제15연대 군인	빨치산 협조 혐의

제 3 권

연 번	사건번호	사건명	발생시기	희생자 (성별, 나이)	가해주체	희생이유
신안군						
24	직다-7788	신안군 하의면 상태서리 박정은 희생사건	1949.1.4.	박정은 (남, 51)	하의지서 경찰	14연대 군인인 사촌 박 만득 피신 혐의
영암군						
25	직다-8917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최윤성 희생사건	1949.4.8.	최윤성 (남, 33)	진압군	좌익들에게 금품 제공 혐의
26	직다-8473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김병남 희생사건	1949.9.23	김병남 (남, 29)	금정지서 경찰	빨치산에게 약 제공
장성군						
27	직다-992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강대석 가족 9명 희생 사건	1949.12.20.	강대석 (남, 48) 김기묘 (여, 40) 강가원 (남, 21) 강점순 (여, 10) 강시원 (남, 7) 강인원 (남, 3) 박○○ (여) 강점희 (여, 4) 강○○ (남, 2)	장성경찰서 경찰토벌대	빨치산 협조 혐의
장흥군						
28	직다-9338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김난금 희생사건	1949.10.14	김난금 (남, 48)	장흥경찰서 경찰	빨치산 협조 혐의
29	직다-565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손금태 · 김소례 부부	1950.1.5.	김소례 (여, 48)	관산지서 경찰	아들 손용반이 14연대 군인
30	직다-595	희생사건	1950.6.6.	손금태 (남, 52)		

다. 가해의 불법성 여부

본 사건은 전라남도 고흥군 등 11개 지역에서 토벌작전과 부역자 색출을 벌이던 국군 제3연대, 제12연대, 제15연대 소속 군인들과 전남경찰국 산하 각 지역 경찰이 비무장 주민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군경 당국은 본 사건 희생자를 무차별 연행하고 불법적인 고문과 구타를 가하였으며, 자의적인 심사와 분류에 따라 살해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하였다.

군부대 반란이 일어나고 이를 토벌하는 시기에서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는 어려웠다고 해도 당시에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필요 최소한 범위에 그쳐야 하는 제헌헌법의 원칙¹⁶⁰⁾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발효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 상태는 아니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인 군인과 경찰은 적법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하였다.

희생자들은 단지 14연대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익에 협조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되었다. 실제 좌익에 협조를 한 경우라도 무장한 경찰과 군인이 법적 절차 없이 비교전 상태에서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행동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본 사건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경찰과 경찰토벌대가 가해자인 경우 1차 지휘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으며, 국군의 경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지휘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군과 경찰의 폭력 행사를 통제하지 못한 국가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60)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대한민국헌법』 (1948) 제28조.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사와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1948. 9.부터 1950. 5. 16. 사이 전라남도 담양 등 11개 지역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여 진실규명 대상자 45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29명 등 총 74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희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희생사실이 확인된 진실규명대상자(44명) :

고광율(高光律, 직다-438), 마준화(馬俊華, 직다-505), 이영근(李榮根, 직다-10584), 마임석(馬林錫, 직다-505), 마성숙(馬成淑, 직다-505), 손금태(孫金台, 직다-565), 김소례(金小禮, 직다-595), 김길동(金吉東, 직다-911), 김길수(金吉洙, 직다-911), 강대석(姜大錫, 직다-992), 김기묘(金基妙, 직다-992), 강가원(姜可遠, 직다-992), 강점순(姜占順, 직다-992), 강시원(姜施遠, 직다-992), 강인원(姜仁遠, 직다-992), 박○○(강가원 처, 이름미상, 직다-992), 강점희(직다-992), 강○○(강가원 아들, 이름미상, 직다-992), 도재덕(都在德, 직다-2408), 도광열(都光烈, 직다-2408), 도광옥(都光玉, 직다-2408), 박판옥(朴判玉, 직다-2433), 임태규(林泰圭, 직다-2723), 김만수(金萬洙, 직다-2808), 백경조(白敬祚, 직다-4363), 고규석(高奎錫, 직다-5416), 정병룡(丁炳龍, 직다-6471), 박판순(朴判順, 직다-6758), 이병규(李秉圭, 직다-7641), 조동석(趙東錫, 직다-7641), 박정은(朴正恩, 직다-7788), 신삼균(申三均, 직다-8020), 유제경(柳濟旻, 직다-8364), 김병남(金炳南, 직다-8473), 김점술(金点述, 직다-8542), 김종철(金宗喆, 직다-8542), 박균상(朴均祥, 직다-8542), 강용구(姜龍求, 직다-8542), 임아지(林阿只, 직다-8779), 신봉옥(申奉玉, 직다-8844), 최윤성(崔潤成, 직다-8917), 윤주한(尹柱漢, 직다-9106), 김난금(金暖金, 직다-9338), 임창순(林昌淳, 직다-10133)

○ 희생사실이 추정된 진실규명대상자(1명) :

표귀중(表貴鍾, 직다-473, 직다-606)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21명) :

한기범, 신흥균(申烘均), 김기태, 정명옥, 김재운(金在允), 김달마(金達馬), 김기팔, 김우명, 김용덕, 문○○(문도연 차남, 이름미상), 박○○(박균수 동생, 이름미상), 김○○(이름

미상), 박○○(신선이 사위, 이름미상), 양영묵(梁永默), 강대영(姜大榮), 염순섭(廉順燮), 김우열, 윤송치(尹松致), 하경식, 최대홍(崔大洪), 구정길(具正吉)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추정자(8명) :

고판수, 곽상수, 이중환, 장일수, 장응벽, 현세종, 이중환 처 1, 이중환 처 2

1) 신청사건은 대부분 1948. 10. 19. 여순사건 발발 후 한국전쟁 전까지의 시기에 발생하였다. 이 시기 군경은 반군 진압작전과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반군과 이에 가담한 협력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고, 이때 민간인들이 반군에게 밥을 해주었다거나 14연대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사건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고흥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곡성군에서 6건이 발생하여 11명이, 구례군에서 8건이 발생하여 21명이, 담양군에서 2건이 발생하여 13명이, 목포시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보성군에서 3건이 발생하여 3명이, 순천시에서 2건이 발생하여 8명이, 신안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영암군에서 2건이 발생하여 2명이, 장성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일가족 9명이, 장흥군에서 3건이 발생하여 3명이 희생되었다. 이는 신청사건 위주의 조사결과이고, 신청사건 중에서도 구례지역, 순천지역, 보성·고흥 지역에서 이미 진실규명된 사건들을 제외한 조사결과라는 한계가 있지만, 본 조사결과를 통해 전라남도 동부지역 외에 신안, 영암, 장성 등 전라남도 각지에 여순사건의 피해가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희생이유는 몇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 반군이나 빨치산 협조 혐의로 희생당한 경우로 당시 반군이나 빨치산 활동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반군에게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반군이나 좌익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희생당한 경우로 군경은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셋째, 군경이 신원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발포하여 희생된 경우다. 넷째, 반군 색출 과정이나 경찰서 등 습격사건 후의 보복성 조사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희생당하거나, 무고와 모략으로 인해 희생당한 경우다. 다섯째, 대살(代殺)로, 제14연대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당한 경우이다. 여섯째, 반군 등에 협조한 뒤 지서 등에 자진 신고하러 갔다가 사살당한 경우다.

4) 본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3연대, 제12연대, 제15연대와 전남 경찰국 산하 각 지역 경찰로 확인되었다. 제3연대는 구례군 산동면에 주둔하면서 토벌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반군 협조 혐의로 원달리 달전마을, 원촌국민학교 등지에서 살해하였다.

제 3 권

제12연대는 순천 황전면, 구례 각 면에서 토벌작전 도중 주민들을 반군 협조 혐의로 섬진강 양전지구, 간전면 간문천변 등지에서 살해하였다. 제15연대는 순천시 송광면 등지에서 빨치산 협조 혐의로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전남경찰국 산하 별교경찰서, 곡성경찰서, 담양경찰서, 목포경찰서, 보성경찰서, 순천경찰서, 영암경찰서, 장성경찰서, 장흥경찰서 등과 각 지역 지서 경찰, 경찰토벌대 역시 반군 진압작전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본서나 읍면별 지서로 연행하여 고문, 구타한 뒤 해당 관내에서 살해하였다.

5) 군경 당국은 희생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 불법적인 조사와 고문, 자의적인 심사와 분류에 따른 살해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하였다. 희생자들은 단지 14연대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좌익에 협조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되었다. 실제 좌익에 협조한 경우라도 무장한 경찰과 군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상태인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행동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화해를 위한 국가의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사과

국가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 토벌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과 경찰이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위령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령제 봉행 등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생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사망일시·장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국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역사기록 정정 및 수록

국가는 본 사건의 민간인 희생 관련 내용을 정부의 공식 간행물, 역사교과서, 군·경찰 발간 자체 간행물, 각 지역 향토사 등에 추가하거나 잘못 기술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평화인권교육 강화

국가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